목 차

발간사 2
축사(국회의원 유승희, 기동민) 4

특집 1 | 성북동 문화재 야행
성북동의 오랜 밤을 만나다 6
저 별이 기억하는 밤 12

문화예술인 초대석
연극의 힘은 소멸, 극단 더늠 대표 차지성 감독을 만나다 16
한국적 정서로 도시를 그리는 화가, 성북미술협회장 김종수 화백을 만나다 28

특집2 |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음악회
성북동은 1955 윤이상을 기억한다 38
'윤이상과 성북동' 강의를 마치고 44

성북구 마을여행
보문동에서 딴생각하기 50
안암을 아남? 54

2017년 성북문화원이 만난 역사 · 인물이야기
우리의 4월은 다시 타올랐다 4 · 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64
초인은 지금? 이육사 탄생 113주년 기념 문화제 68
성북동발 신문화운동과 채동선의 음악 활동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72
아나키스트의 아내 창작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77

특집3 | 춘사 나운규 서거 80주기 영화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80
아리랑 영화제 시네토크 '역사&영화' 85

2017 성북문화원 소식
2017 외부 경연대회 수상 내역 107
2017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109
2017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116

2017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39
2017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41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 2018-02-14 오전 8:53:10

발간사

『성북문화』 5호를 내며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저물어 갑니다. 작년 20주년을 맞이한 성북문화원은 관례를 치룬 마음으로 2017년을 맞이하였고,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성년이 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북문화』 5호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이 진행한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돌아보면 4월의 4월 혁명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11월의 나운규 서거 80주년 기념행사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겸연쩍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수고의 박수를 쳐줄 정도는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올 한해 성북문화원은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습니다. 성북동의 두 음악가 채동선과 윤이상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재 야행도 새로운 시도의 하나였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과 부인 이은숙 여사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북문화원과 함께 시작한 이육사 선생 관련 사업은, 성북구민의 대표적인 기념 행사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북구민의 사랑과 성북구청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북문화원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내년에도 성북문화원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합니다. 역사 · 문화자원 발굴을 계속하는 한편, 이것을 정리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쉽게 공개하는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2019년에 있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올해 진행한 다양한 사업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일입니다.

곧 새해가 밝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새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해라고 의미를 부여함으로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18년 성북문화원도 새로운 꿈을 꾸겠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이루는 무술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북악산 중턱에서 바라본 성북구

축사



겨울나무들이 하나둘 붙들고 있던 잎들을 털어내고 몸을 가벼이 할 때에 『성북문화』 5호 발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겨울이 포근해짐을 느끼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북문화원은 성북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은 보다 새롭고 획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걸어온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봄, 가을에 개최한 성북동 문화재야행을 통해 성북의 오랜 전통과 그 전통을 함께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의 문화사업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성북구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문화예술과 잇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문화예술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고 그 선두엔 성북문화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일상의 예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문화강좌에서는 매일 다채로운 방식으로 배움을 뽐내고 과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실들이 내년에 또 다른 새싹을 돋게 하고 꽃을 피우며 탐스럽게 맺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 연령대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고 꾸준히 사랑할 수 있도록 늘 힘써온 성북문화원에게 응원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발자취를 간직한 『성북문화』 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7년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건강히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갑) 국회의원 유승희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 2018-02-14 오전 8:53:12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2013년 창간호가 발간된『성북문화』가 어느 덧 다섯 손가락을 가득 채우는 숫자인 5호를 발간합니다. 그간 성북문화원이 다져온 내실이 가져온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성북문화』와 같이 제5호도 성북구의 역사와 사람들의 자취를 담뿍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은 학술회의, 뮤지컬, 연극, 음악,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성북구의 역사 · 문화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간 성북문화원이 발굴 · 정리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 · 정리한다면 구민들은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의 시작은 작은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이야기가 우리의 지친 삶에 활기와 위안을 주는 것이야 말로 이야기가 가진 힘이며 성북문화원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과 맺은 일상의 작은 인연 하나하나를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올해의 겨울 공기도 매우 차갑습니다. 하지만 엄동(嚴冬)이 깊을수록 봄은 가까이 온 것이니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성북구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성북문화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을) 국회의원 기동민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 2018-02-14 오전 8:53:12



“성북동의 오랜 밤을 만나다”



봄의 끝자락, 성북동의 낮은 비둘기가 꾸벅 졸 것 같이 밝고 따뜻하다.

이곳에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성북동은 서울시 최초로 역사문화자구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많은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곳이다. 한용운, 이태준, 조지훈, 김환기, 김용준, 윤이상, 채동선…, 성북동은 그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예술가들의 안식처였다. 심우장, 수연산방, 최순우옛집, 간송미술관, 이종석별장, 한양도성에서는 그들의 자취를 엿볼 수 있다.

"2017 성북동 문화재 야행"은 그들이 성북동에서 보냈을 수많은 밤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거리에서 그들의 시와 작품이 각색되고, 각 문화유산에서는 그들의 삶이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펼쳐졌다. 이를 위해 문화재와 문화기관들은 야행 기간 동안 특별히 야간개방을 실시하였다.

주제인 '저 별이 기억하는 밤'은 시간은 지났지만 하늘의 별은 그때를 기억할 것이라는 뜻에서, 김광섭 시인의 〈보이지 않는 별〉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것이다. 성북동의 멋에 봄의 정취와 밤의 감성이 더해진 성북동 야행은 저 별들이 기억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갔다.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진행된 "성북동 문화재 야행" 개막식.



가수 장재인의 공연. 이날 D'Live 착한 콘서트에는 빈티지프랭키, 로맨틱 펀치 등 많은 가수가 참여하여 노래를 들려주었다.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의친왕의 별궁 성락원이 "성북동 문화재 야행"에서 특별히 개방되었다.



한국가구박물관 탐방. 탐방을 위해서는 성락원과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을 해야 했고, 조기 마감되어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 2018-02-14 오전 8:53:24









성북동에 밤이 찾아오고 문화재와 문화시설에 담긴 역사, 인물, 이야기와 관련된 공연이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1 뮤지컬 〈심우〉_만해 한용운의 심우장에서 2 〈내 곁에 찾아온 아름다움〉_최순우 옛집에서
3 〈입술로 시를 쓰다〉_조지훈의 방우산장에서 4 〈깨비깨비 돌도깨비〉_우리옛돌박물관에서



거리에서 진행된 콘서트 "별이 동동"에는 국악협회, 연극협회,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사진)가 함께 해주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 2018-02-14 오전 8:5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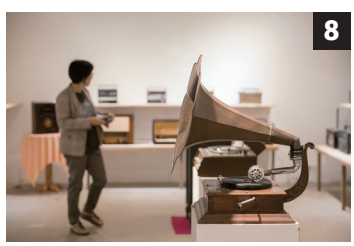
성북문화원 문화강좌 사군자반 수강생들과 함께 한 부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전시프로그램과 거리 공연이
성북동의 멋을 더해주었다.
5 전시_성북동작은갤러리(성북동을 그리다)
6 공연_거리의 100인
7 전시_거리 전시(성북동의 어제와 오늘)
8 전시_선잠52(빈티지음향기기 전시)
9 공연_서예퍼포먼스











정리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 2018-02-14 오전 8:53:43

저 별이 기억하는 밤

글 문건호(성북동야행 민간사무국)

하늘이 맑아 별이 더 빛나는 청명한 가을.
성북동에 특별한 밤이 내린다.

10월 27일 금요일 밤, 성북동의 시작점인 지하철 한성대입구역 가로등에 반짝이는 청사초롱이 걸리기 시작했다. 청사초롱은 성북동의 중심 방우산장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따라 쭉 걸어가면 '성북동 야행'이라는 글씨가 빛나는 커다란 박스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다. 성북동의 특별한 밤은 바로 '성북동 문화재 야행'이었다.

성북동 문화재 야행. 2017년 5월에 시작된 이 특별한 밤의 이야기는 성북동의 문화재들을 야간에 개방하여 사람들이 늦은 시간에도 문화재들을 관람할 수 있게 만든 행사다. 문화재청의 주요 사업으로 전국 18개의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야행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재를 밤에 개방함으로써 그 특별함을 더한다. 문화재와 전통이 만들어 낸 고유의 짙은 색채와 고즈넉함을 달빛과 은은한 조명 아래 즐겨본다니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밤이다.

성북동은 예전부터 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살았거나 스쳐지나갔던 곳인 만큼 이들과 관련된 여러 공간과 건물들이 문화재로 남았다. 이런 특징을 살려 성북동 문화재 야행은 '문학'이라는 콘텐츠를 입었다. 성북동에서 삶을 보낸 저항시인 이육사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부른 밴드 '빈티지프랭키'의 무대를 개막공연으로 선택한 것은 이를 보여준다. 〈절정〉, 〈꽃〉 등 이육사의 유명한 시들이 음악이라는 옷을 입고 시대에 맞게 재해석 되어 성북동의 역사를 대변하는 성곽 아래에서 연주되었다. 오직 성북동 문화재 야행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었다. 이 공연과 함께 본격적인 성북동 문화재 야행이 시작되었다.

개막공연이 끝나고 성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방우산장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 이곳에서는 야행의 중심인 부스가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등산복을 입고 찾아온 노부부, 서로 손을 잡고 온 연인, 사진기를 들고 서로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문화재 야행을 즐기러 온 다양한 관람객들로 인해 부스 앞은 붐비고 있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 2018-02-14 오전 8:53:46







성북동 문화재 야행 '저 별이 기억하는 밤'
1 연극_성북동에 깃들어 가는 길 2 성북동 주민들 체험부스존 3 한민석 재즈콘서트 4 빈티지프랭키 개막공연

'자. 지금부터 투어가 시작됩니다.'

맑지만 성량이 큰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붐비던 사람들은 일제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둥글게 에워싼다. 커다란 청사초롱을 들고 오늘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문화재 야행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문화관광해설사다. 해설사는 거의 2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성북동의 숨겨진 문화재 명소들을 탐방한다(가을 문화재 투어는 문화재와 공간이 지닌 특징들을 묶어서 종교코스, 순성코스, 일반코스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시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 선생이 짓고 만년을 보낸 한옥 심우장(서울특별시 기념물 제7호), 시인 백석과 자야의 이야기가 있는 길상사, 1953년에 설립된 한국 가톨릭 최초의 방인 남자수도회 수도원-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원(등록문화재 제655호) 등 아름답고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장소들. 이곳들은 낮에도 매력이 넘치지만 고즈넉한 가을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바라볼 때의 정취는 더욱 색다르고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에 각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들으니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4 2018-02-14 오전 8:53:51

한국가구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성북구립미술관 등 성북동에만 있는 문화공간들도 문화재들과 함께 야간에 개방했다. 각 공간이 지닌 특징과 이야기를 살린 공연들도 펼쳐져 야행의 재미를 더 높였다. 심우장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이야기로 제작된 뮤지컬이, 우리옛돌박물관에서는 돌박물관이라는 특징에 맞춘 어린이극 〈깨비깨비 돌도깨비〉가 상연되어 이곳들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문화재 야행이라고 해서 오직 문화재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탐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야행이 진행되는 거리 곳곳에는 작은 시장이 열렸다.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가면을 만들 수 있는 체험부스, 술을 좋아하는 성인들을 위한 전통방식으로 막걸리 만들기, 향긋한 꽃으로 만든 꽃차를 파는 상점 등 일반 시장에서 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상점들이 야행의 거리를 가득 채웠다. 성북동의 내로라하는 맛집들도 야행 기간 동안 특별한 가격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해 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성북동은 무궁무진한 문화자원이 있고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 문화재 야행이 열리기에 적합하다. 성북동 문화재 야행. 이제 첫 걸음을 조심히 떼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 발걸음이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이 될 때마다 성북동의 밤이 지닌 매력을 매회 하나하나 끄집어 낼 수 있기를,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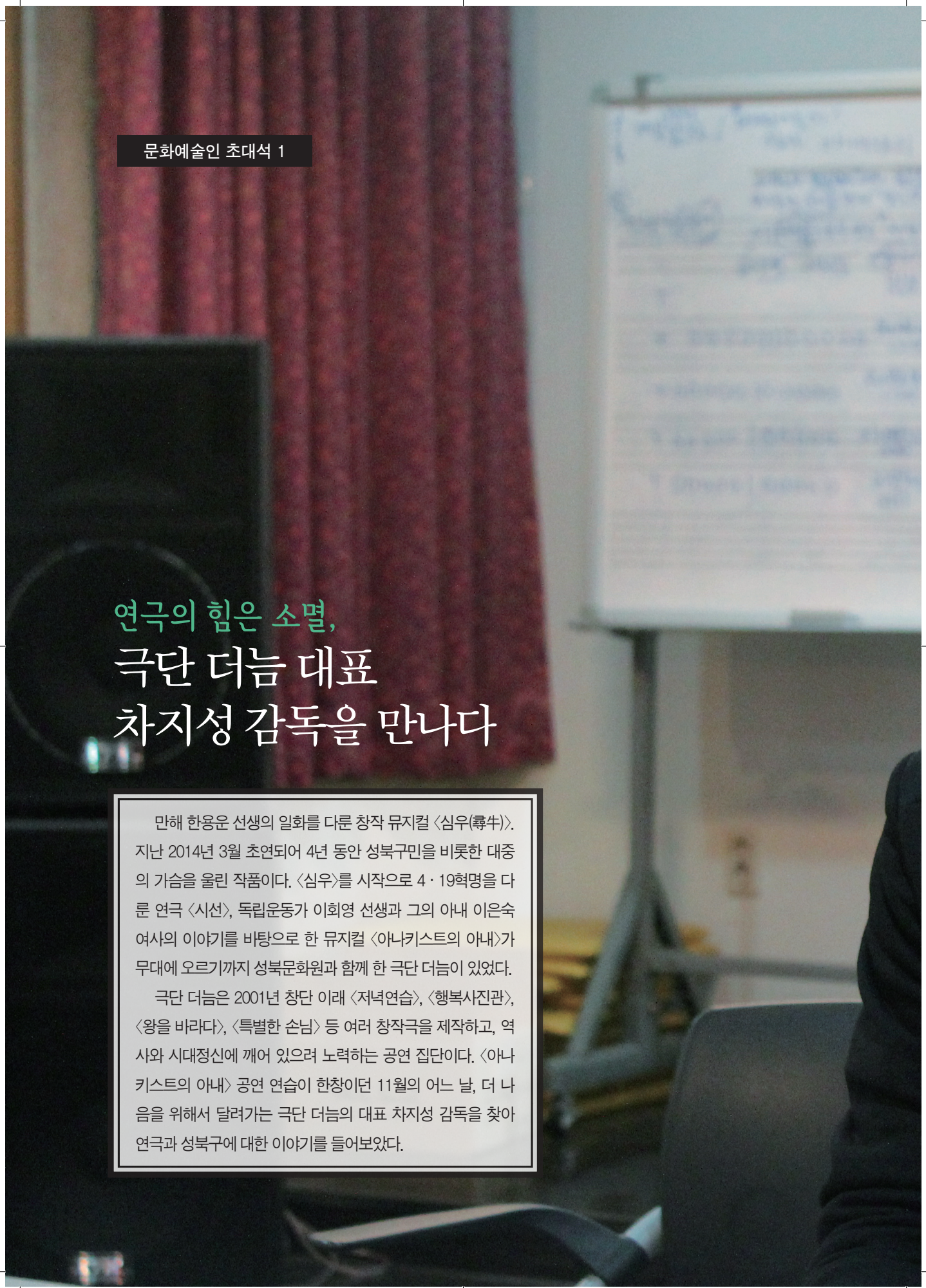






성북동 문화재 야행 '저 별이 기억하는 밤'
5 문화재 투어 6 길거리 버스킹 7 성북동 야행 박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5 2018-02-14 오전 8:53:56



연극의 힘은 소멸,

극단 더늠 대표 차지성 감독을 만나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일화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심우(尋牛)〉. 지난 2014년 3월 초연되어 4년 동안 성북구민을 비롯한 대중의 가슴을 울린 작품이다. 〈심우〉를 시작으로 4 · 19혁명을 다룬 연극 〈시선〉,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과 그의 아내 이은숙 여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가 무대에 오르기까지 성북문화원과 함께 한 극단 더늠이 있었다.

극단 더늠은 2001년 창단 이래 〈저녁연습〉, 〈행복사진관〉, 〈왕을 바라다〉, 〈특별한 손님〉 등 여러 창작극을 제작하고, 역사와 시대정신에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공연 집단이다. 〈아나키스트의 아내〉 공연 연습이 한창이던 11월의 어느 날, 더 나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극단 더늠의 대표 차지성 감독을 찾아 연극과 성북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마
음



Q_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셨습니다. 연극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A_ 중학교 때 연극을 하면 방학 때 하는 자율학습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담임선생님 친구분이 아동극을 제작하는데 잠깐 가서 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네, 라고 한 게 첫 시작이 된 거죠. 연극을 하는 동안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요. 물론 수업을 안 나가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의 어른들,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후반인데 그 시골에서 그들과 같이 지지고 볶고, 공연 하나를 위해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죠.

Q_ 그럼 원래 연극배우로 출발하셨는데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네요. 극작, 연출로 선회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시다면요?

A_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98년도쯤 대학로에서 배우로 활동을 할 당시에는 연출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대부분 연출과 극작 또는 배우 혹은 다른 스태프 역할을 겸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점점 배우의 일보다 연출의 일, 글 쓰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작가가 되더라고요.

Q_ 연출은 배우를 총지휘하는 총감독인데 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신지요?

A_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연출이라는 것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있고, 끝없는 요구에 계속 변화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연출은 그 극의 제일 첫 번째 관객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배우들이 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고 이해를 시키는 싸움이 너무 힘들었어요. 설득도 많이 하고 혼을 내기도, 혼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좀 하다보니 '이걸 왜 나 혼자 책임 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다가가기로 했어요. '이 작품을 함께 책임지자!'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스태프, 모든 배우들이 공동범죄자? 하하 이런 개념으로 다 한 발씩 담글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Q_ 연출가이시면서 극단 더늠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극단 더늠은 배우와 연출, 작곡가 등의 스태프가 뜻을 모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_ 극단 더늠은 2001년에 배우와 스태프 위주의 단체로 창단되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동갑내기 배우들이 모여서 극단을 만들었는데, 햇수가 가면서 스태프 위주의 단체가 되면서 성격이 살짝 바뀌기도 했어요. 요즘 들어 배우들이 늘어나면서 스태프와 배우들이 함께하는 위주의 극단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8 2018-02-14 오전 8:54:00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공연 연습

Q_ 연출과 연극을 하는 것은 사실 늘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극단 운영도 함께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으시다면요?

A_ 물론 예산 부분이 가장 힘들긴 한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업 구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다음 힘든 것은 공연이 끝나고 나서예요.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극단에서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다시 살릴 것인지, 잠시 묻어둘 것인지 고민하죠. 정말 고생해서 만든 작품이고 저희는 작품 자체에도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관심도 가지며 발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극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Q_ 그럼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왕을 바라다〉와 연극 〈시선〉, 역사적 인물을 다룬 뮤지컬 〈심우〉와 〈아나키스트의 아내〉, 지역을 소재로 삼은 〈특별한 손님〉 등 좋은 창작극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작한 작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혹시 아쉬웠던 작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9 2018-02-14 오전 8:54:01

A_ 홍천사에서 했던 〈홍천의 계〉이라는 작품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작품이 생명력을 다 발현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제작 여건이야 만들기 나름이기도 한데 하루라는 짧은 공연 기간에 비가 오는 상황까지. 공연 당일의 분주함과 어수선함도 있었고요. '관객들에게 좀 더 제대로 보여드렸다면 작품 자체의 생명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Q_ 감독님 작품 중에는 연극보다는 뮤지컬이 많은데 특별히 뮤지컬을 선호하시는 건가요? 물론 연극도 제작을 하셨는데 연극과 뮤지컬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_ 제가 하는 작품이 사실 오리지널 뮤지컬 쪽은 아니에요. 연극과 뮤지컬을 구분할 때, 음악에 더 치중하느냐 극에 더 치중하느냐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제가 말하는 오리지널 뮤지컬이라함은 음악적인 요소에 많은 무게감을 두고, 음악의 구성과 전개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말해요. 뮤지컬은 갈래 자체가 음악에서부터 시작된 극이에요. 반면 제가 만드는 뮤지컬은 거꾸로 연극에서 시작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정말 중요한 곳은 음악적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사람의 감정과 감성이 극대화되거나 어떤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나오는 것이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라마성이 있는 뮤지컬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뮤지컬, 대형 뮤지컬은 넘버가 굉장히 중요시되더라고요. 음악의 라인에 따라 극도 흘러가고 배우들의 감성도 중시되고. 음악이 먼저 나오면 그 음악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즉 그 성량을 낼 수 있고 그런 성격, 모형, 음색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약간 오페라에 가까운 거죠.

Q_ 그렇다면 감독님의 작품은 연극에서 시작해서 극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음악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 면에서 극단 더늠에서 이보람 음악 감독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A_ 중요합니다. 다른 작가들의 경우 뮤지컬을 한다고 하면, 일단 곡 위주의 라인을 만드는데 이보람 감독님은 함께 작업을 많이 해서인지 드라마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드라마에서 음악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많은 부분을 같이 해줘서 서로 잘 맞고 고맙게 생각해요.

Q_ 뮤지컬과 연극 한 편이 만들어지려면 창작의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저도 글을 쓰다보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잘되면 뿌듯하기도 한데요. 글을 쓰는 것과 글을 써서 연출로 올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시작하는 과정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A_ 제일 중요한 부분은 '왜 써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가 가장 중요하죠. 명분의 싸움이에요. 명분과 이유가 명확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도와주시는 분들과 동료들이 생기고 함께 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왜 해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0 2018-02-14 오전 8:54:01

야 하지?' 하면서 명분과 자신이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게 스스로 설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Q_ 연극에 대해 조금 더 여쭤볼게요. 좋아하는 극작가와 작품이 있으신가요?

A_ 저는 사실 운이 되게 좋아요. 자랑 아닌 자랑인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렸을 때 조연출을 하면서 박근형 선생님, 김한길 선생님, 최진아 선생님, 손기호 선생님, 장우재 선생님, 김한길 선생님 같은 내로라하는 연출들과 같이 작품을 하면서 연출을 배웠어요. 그분들 모두 좋아하는 연출가들이에요. 손기호 연출의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 최진아 연출의 〈그녀를 축복하다〉, 〈연애 얘기 아님〉, 〈1동 28번지 차숙이네〉처럼 좋은 작품들을 같이 했고, 〈청춘예찬〉은 박근형 선생님과 초연 때 함께해서 영광이었던 작품이죠.

Q_ 이번에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도 있었는데 이런 현실에서 창작자로서, 연극인으로 느낀 문제점이 있으시다면요?

A_ 어느 정권이든 블랙리스트는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겠죠. 문제는 이걸 실행에 옮겼느냐, 그냥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실행하면서 예술가들이 자기검열을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아요. '그래, 넌 나를 싫어할 수 있어. 그래도 난 내 것을 할 거야'라는 생각과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데, 한두 번 커트당하고 안 되다보니 스스로 검열을 하는 거죠. 예술가는 싫든 좋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나의 작품이야,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그 전에 이미 검열을 하면서 예술작품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Q_ 그리고 요즈음엔 대학로의 위기, 연극의 위기라는 말도 많잖아요. 연극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같기는 한데, 연극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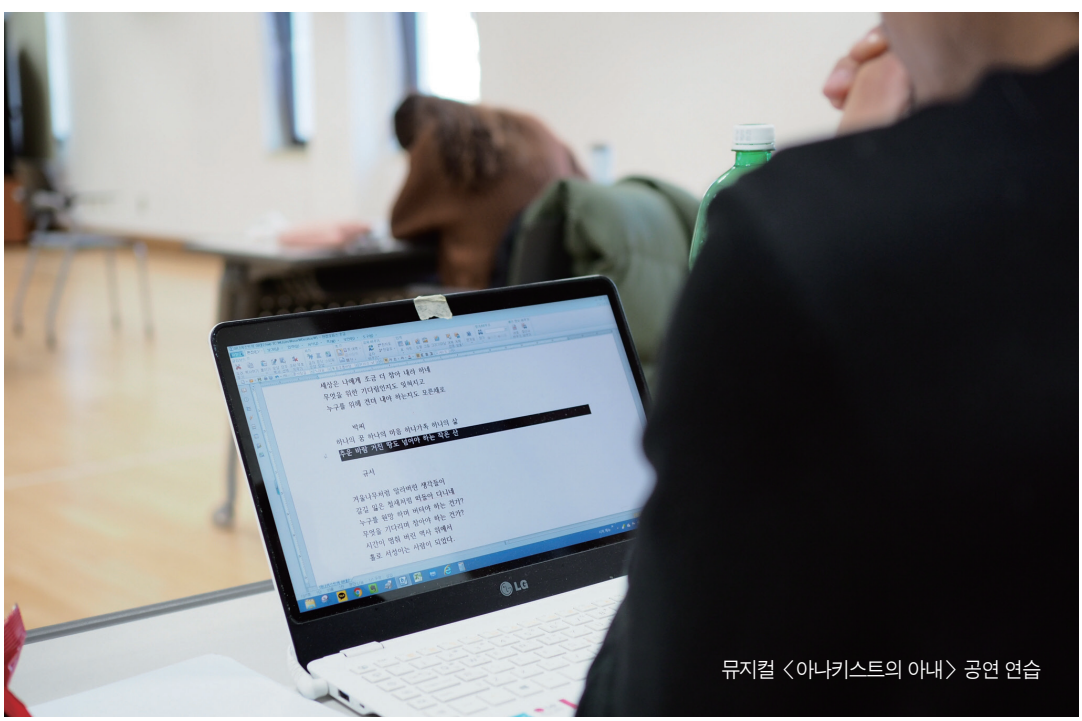
A_ 사람들이 연극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봤을 때, 연극은 늘 위기였던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셰익스피어 시대 때도 탄압을 받았고, 그 전의 희랍극에서도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스스로를 탄압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자본과의 싸움에서 힘들었죠. 그런데 연극이 위기가 없으면 그게 연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극은 늘 위기 속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연극의 위기보다는 대학로의 위기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Q_ 그런 의미에서 대학로를 바라보는 감독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대학로는 연극인들에게 친화적인가요? 여전히 연극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1 2018-02-14 오전 8:54:01

A_ 대학로에 원래 있던 학교들이 떠나고 연극영화과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건물에 대학교, 예술관, 극장들도 생겨났죠. 그런데, 그럼으로써 기존에 연극을 하던 배우들, 연출가, 작가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었느냐는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학교와 학생들의 유입은 행복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버티기 문제거든요. 어떤 장르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연극도 제대로 하려면, 10년~15년 이상 해야 이제 '아, 무언가 해보는구나' 하는데요. 1년에 연극영화과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2~3,000명 정도 된대요. 그 인원이 무조건 대학로로 몰리는데 살아남는 인원은 몇 백도 안 되죠. 2~3년이 지나면 최종적으로 남는 인원은 서너 명이에요. 그들도 계속 연극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10년, 15년을 버텨야 하는데 사실상 힘들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연극을 계속 작업할 수 있는 극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기획자, 기획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배우들은 꾸준한 작업이 아니라 따로 일을 하다가 오디션을 보고, 같이 작품을 만드는 것보단 선택을 받아야만 연극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건 물론 배우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같이 뭉쳐서 무언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극을 만들어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시작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져 버렸어요.

Q_ 연극인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정부나 서울시에서 연극인의 기초생활권을 보장해서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공연 연습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2 2018-02-14 오전 8:54:01

A_ 예술, 연극을 하는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한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왜 국가적 지원을 받느냐, 라고 물어온다면 저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생활력이 없거나 사회부적응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인 것 같아요.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어야 하죠. 다른 사람의 인생, 사회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고 싸워나가는데 사회가 그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경제적 부분, 기업적 측면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요.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다르거든요. 명확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인 기업은 반대편에는 그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이 있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에 대한 반응이 제가 생각하는 작품활동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회적 지원이 없다면 칼날은 무뎌지고 누군가의 입맛에만 맞는 이상한 요리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이상한 요리에 길들여지게 되죠. 저는 자본과 타협하는 예술가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연극인들의 기초생활 보장은 최소한은 먹고 살게 해줄 테니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_ 그렇군요. 또 하나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 하자면, 성북구에는 연극적 인프라 구축은 많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연극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오래 활동도 하셨는데, 이곳에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요?

A_ 성북구, 대학로, 부산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든 관객들이 있는 곳이라면 공연을 해야 하는 곳이죠.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 극장이 되니까 지역이 다르다고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북에 와서 이야기의 성격이 변화한 것은 있어요.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 지역의 이야기를 찾게 되고 큰 시도도 했죠. 이전에 성북문화원과 같이 했던 〈특별한 손님〉을 디벨롭했는데, 소재 자체가 미아리고개이고, 성북구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한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이야기가 될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야기가 될까? 화두를 던져 보았는데 저는 가능성을 많이 봤거든요.

Q_ 그럼 이어서 성북문화원과는 2014년 〈심우〉로 시작해서 지역을 소재로 하기도 하고 여러 작업을 해왔는데 어떠셨나요?

A_ 성북문화원이 저희에게 준 것은 지역적인 것보다 역사적인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맨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명분을 줬죠. 〈심우〉와 〈특별한 손님〉도 마찬가지고요. 성북문화원이 역사적 사건에 담긴 의미를 찾아 주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명분을 정확하게 제시해주었습니다. 성북문화원과 했던 작업이 지역성만을 살려서 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만 다뤘다면 저는 오히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3 2018-02-14 오전 8:54:01



극단 더늠의 창작뮤지컬 〈특별한 손님〉 공연 (극장 봄, 2017.09.20~10.1)

그걸 한번 같이 연구해보고 소재를 구하는 거였죠.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다가왔기 때문에 훨씬 더 뜻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해요.

Q_ 성북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연극도시성북'을 만들려고 한다는데 이룰 수 있을까요? 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함께 해야 할까요?

A_ 성북구나 기관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공연했을 때에 비하면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전히 공연을 마치 공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공연을 한두 시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하는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사의 경우, 노하우가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맞추고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되었을 때 더 빨리 좋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사실 공연의 경우 자본이 더 많이 투입되면 보이는 부분의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그보다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이 작품을 한 번 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별로였으니 다른 작품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좋게 만들 방법을 같이 제시하고, 기다려주고, 계속 시도할 수 있게 응원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발성이나 행사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4 2018-02-14 오전 8:54:03

적 지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연예술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Q_ 현재의 시스템은 공연 자체에 대한 지원인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단체를 꾸준히 지원해주는 장기적인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단 더늠에서는 소극장 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작하게 된 이유와 어떤 공간인지 소개해주세요.

A_ 소극장 봄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대학로에서 너무 힘들어서예요. 극단이 대학로에 있었는데 월세가 너무 오르고, 공연은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죠. 우리가 공연을 하기 적합한 곳이 어딜까? 찾고 찾다보니 대학로를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자리잡게 된 곳이 삼선동에 있는 소극장 봄인데, 만들고 나서 더 재밌어졌어요. 극장을 만들고 계속해서 공연을 하니까요. 예전에는 극장을 한번 잡으려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극장 감독님, 대화를 하러 들어오는 팀하고 소통하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되었고요. 소극장 봄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없애고 젊은 연출가들, 예술가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시도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요. 저희 극장 봄의 특징이 객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객석 또한 물론 작고요. 무대가들, 젊은 연출가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려보게 하죠. 그 대신 대관료는 저렴하지만 기획자들은 별로 싫어하는 특색을 갖추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운영하다보니 저희 극장에서 시작하는 젊은 연출가들도 많아지고, 워크숍도 많이 하고,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된 것 같습니다.

Q_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까 살짝 이야기하셨지만, 연극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력, 연극의 힘이란 무엇일까요?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공연 (2017.11.30~12.10)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5 2018-02-14 오전 8:54:05

“ 연극이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힘은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 연극에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는 틀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겠죠. (…) 하지만 연극은 가장 인간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A_ 연극이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힘은 소멸이라고 생각해요, 소멸. 연극은 공연 한 번 하면, 그것이 남지 않고 사라지거든요. 보실 수 있는 분들만, 그것도 당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와서 보고 나면 그게 남지 않고 사라져버려요.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게 가장 큰 거 같아요. 이 작품은 사라지고 당신들이 본 것 또한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들 사라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연극에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할 수 밖에 없는 틀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겠죠. 사회적 이슈, 환경문제, 정치문제, 정책문제까지. 하지만 연극은 가장 인간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죠. 어차피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다음 역사적으로 100년도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러니 어차피 소멸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연극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보는 거죠.

Q_ 미술하시는 분은 미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소유할 수 있고 아주 오래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예술이지만 연극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으세요?

A_ 앞으로 밝은 작품을 꼭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 극단의 특징이 현시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딘가에는 밝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웃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Q_ 그럼 현재는 〈아나키스트의 아내〉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작품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6 2018-02-14 오전 8:54:05



A_ 작곡가 채동선에 대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확장을 하는 부분인데, 내년에 리딩을 한다고 해서 내년 초에 완고를 해야 하는데 언제 또 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Q_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극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_ 저는 시도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 해봐, 어차피 짧은 인생이고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지, 뭐.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고생스럽더라도 해 보고 또 다른 삶도 있어, 그렇게 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 연극을 시작한다면 '네,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대신 아마 행복하고 박수 받는 것보다 짜증나고 힘든 부분이 더 클 텐데 고통과 노력을 즐길 수 있다면 연극 또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_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나키스트의 아내〉와 함께 준비하시는 작품도 잘 되길 바랍니다.

A_ 네, 응원해주세요. 많은 관객과 함께.

진행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 민문기(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정리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7 2018-02-14 오전 8:54:05

한국적 정서를 도시를 그리는 화가

성북미술협회장 김종수 화백을 만나다



지난 10월 성북예술가압장에서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폐가압장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 이 특별한 전시는 성북미술협회의 두 번째 정기전이었다. 성북미술협회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역미술협회가 없었던 우리 구에 2016년 1월 창립되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 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 바로 서양화가 김종수 화백이다.

김종수 화백은 개인전 18회를 비롯하여 2011 뉴욕아트엑스포(맨해튼), 2014 한국국제아트페어(코엑스), 2016 한국미술오늘展 100人(미술세계), 꽃-희망 동행전(대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재 성북미술협회장, 신기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용산미술협회 고문,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미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8 2018-02-14 오전 8:54:06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29 2018-02-14 오전 8:54:08

Q_ 본업은 화가인데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미술 신기회와 성북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서양화가, 화백, 회장님 중에서 어떤 호칭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요?

A_ 당연히 화가죠. 어릴 때부터 화가의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왔으니까요. 여러 직책은 성격이 적극적이니까 다른 화가들이 제가 적임자라면서 일을 맡겨서 하게 된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이지 어떤 직책에 욕심을 가지고 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Q_ 조금 전에 어렸을 때부터 화가를 꿈꾸셨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A_ 어릴 때 아버지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화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그림을 끄적거리면 늘 강조하며 알려주신 부분이 풍경화의 원근법이었어요. 앞에는 크게 그리고 뒤에는 작게, 흐리게 그려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 공감대에서 싹이 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축적이 되어서 큰 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Q_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품 활동을 위한 영감은 주로 어디서 찾으시나요?

A_ 화가들은 누구든지 청년기에 접어들면 학교에서 배우던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투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이 형성되는데, 대개는 자연 속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연관된 부분을 집약하다보면 소재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제 그림을 말하자면 순전히 어릴 때 보았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린 거예요. 시골집에서 낮잠을 자려고 방에 드러누우면 유리가 아닌 창호지에 은은하게 그림자가 비치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 이미지가 와 닿은 부분이 컸어요. 지금도 작품에 돌가루를 이용해서 창호지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한지를 사용한 거 아니냐고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겪는 희망과 애환, 마음의 상처로 얻은 아픔이 교차되면서 느낀 것들, 내 삶의 부분을 투영하려고 하죠.

Q_ 그럼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해오셨는데 청년 작가일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으시다면요?

A_ 차이가 많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화가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엔 묘사력을 키우기 위해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엔 일정 기간 동안 매너리즘에 빠져서 묘사 위주의 그림을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변화는 청년기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초기에는 풍경과, 인물화, 누드화, 정물화 등 많은 걸 그렸어요. 그러다 '나는 무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0 2018-02-14 오전 8:54:08



〈도시나무〉, 혼합재료 및 아크릴, 판넬, 2017

엇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어요. 화가로서 나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다보니 이건 아니구나, 했죠. 누구든지 그릴 수 있는 걸 저도 그리고 있었거든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새로 그리는 과정 속에서 변화는 오게 됩니다. 저는 아마 40~50대쯤 그런 변화를 맞았던 것 같아요.

Q_ 〈도시나무〉는 선생님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돌가루를 사용해서 전통적인 느낌도 주고 있는데요. 서양화가로서 우리나라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충돌과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해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A_ 〈도시나무〉를 그리기 전에는 〈무언의 세월〉이라는 작품을 시리즈로 그렸어요. 두 작품 모두 나무를 소재로 그린 맥락은 같지만 재료 선택이 다르죠. 〈무언의 세월〉 때는 기름 물감을 사용했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1 2018-02-14 오전 8:54:09

데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물감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쓰다 보니 우리의 멋, 우리의 얼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민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려도 겉모양은 우리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정서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지금의 그림을 완전히 돌가루를 가지고 표현하는 데까지 온 것 같아요.



〈도시나무〉, 혼합재료 및 아크릴, 판넬, 2017

Q_ 〈도시나무〉 작품을 보면 돌가루로 그리는 작업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품 한 편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는지요?

A_ 많은 고민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돌을 직접 빻아서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을지로 같은 곳에 가면 돌가루 소재를 팔아요. 그것들을 배합해서 캔버스에 그리는데 그냥 바르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완성해야겠다는 걸 머릿속에 구상해서 표현하는 거죠. 선을 긋고, 원을 그리고, 마찰효과가 느껴지는 부분을 미리 정해서 발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마르면 그 위에 물감을 입히고 깎아내는데, 딱딱하거든요. 송곳이나 예리한 칼로 긁어내고 사포로 다시 문지르고 또 바르는 방법으로 계속해나가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Q_ 와, 한 작품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네요. 〈도시나무〉는 삭막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현대인의 아픔을 투영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요?

A_ 〈도시나무〉에 내포된 의미는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수나 건물 앞에 옮겨진 나무들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는데 그건 인위적인 아름다움이잖아요. 인간 역시 태초에 원시인은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같이 살았다가 진화를 거쳐 형식과 인성을 갖추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죠. 도시 속 나무도 이와 같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살다보면, 대인관계에서 부딪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세월이 지나면 잊히고 치유되고, 다시 새로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요. 나무 역시 자기 본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세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다른 모습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특히 플라타너스는 성장하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얼룩이 생기는데 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2 2018-02-14 오전 8:54:10

> “나무의 생명력도 강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바탕이나 나무 속에 줄을 긋고 잘라낸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그렇죠. 또 한 예술가가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성장하고 살아온 과정을 그림 속에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국이 언제 어디서 벗겨졌는지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지를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 그곳을 바라보면 자국이 없어요. 나무의 울퉁불퉁한 곳들은 그렇게 전부 상처가 아문 곳들이에요. 나무의 생명력도 강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애를 썼어요. 바탕이나 나무 속에 줄을 긋고 잘라낸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그렇죠. 또 한 예술가가 자기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은 그가 성장하고 살아온 과정을 그림 속에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_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성북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역미술협회가 없던 성북구에 2016년 1월 성북미술협회가 창립되고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A_ 성북구에는 15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오기 전에는 용산미술협회 회장을 맡았는데, 성북에는 미술협회가 없는 게 의외였어요. 성북은 예향(藝鄕)의 도시잖아요, 많은 예술인들이 성북구에 살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에 각 지역마다 협회에 작가들이 모여서 지역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활동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후배들과 토론을 하고 뒤에서 도와줄 테니 추진을 해보라고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음악과 달리 화가들은 개별 작업이 대부분이라 모임 자체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과의 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에 제가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으로 있으니까 미술협회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죠. 설립에 대해 먼저 미술협회에서 회의를 하고, 내가 앞장설 테니 도와달라고 주변 작가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다녔어요. 처음엔 2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대표성 가지려면 많은 인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 50명을 만나 회의를 하고,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준에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성북미술협회가 만들어졌죠.

Q_ 설립도 어려웠지만 두 번의 전시도 힘들게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립전은 종로구에서, 올해 10월 열린 두 번째 정기전은 가압장에서 하셨잖아요. 사실 가압장은 전문적인 전시장소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방치된 곳이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점이 많으셨는데요. 예술가로서 성북구의 예술, 특히 미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3 2018-02-14 오전 8:54:10

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A_ 우리 성북구에는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타 지역은 구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 자꾸 목소리를 내니까 방향이 잡히고, 공간이나 자금 확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들은 오랜 기간 꾸준히 해왔고, 성북미술협회는 2년밖에 안 되었으니 뒤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너무 열악해요. 다른 곳에는 여성회관, 구민회관, 예술회관 외에 아트홀 개념의 건물들이 설립되어 있는데 성북에는 문화시설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성북미술협회 창립전 때도 성북구립미술관이 유일한 전시공간이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의 동네에 가서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전시공간이 없어서 매일 고민하고 찾아다니고, 대책회의도 몇 번을 했는데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가압장을 본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여다보니 젊은 건축가들 15명이 모여서 '성북동을 그리다'라는 전시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를 활용해서 전시를 하면 어떨까, 하면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진행한 거죠. 전시공간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좀 마련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민들과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정책을 펴나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들이 삶에 윤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술 분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많을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청에서도 크게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리라 생각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미진한 상태에 있다 보니 지역 균등을 위해서 빨리 방향성을 잡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Q_ 그렇군요. 연관된 질문이기도 한데, 지난 11월 성북문화원 어울마당 축제인 전시마당 개막식에도 참석해주셨잖아요. 전시마당은 전문작가가 아닌 문화원 수강생들이 아마추어로 생활예술을 실현한 것이고 이런 것이 대중화될수록 미술, 예술의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예술이 활성화되려면 무엇이 뒷받침 되어야 할까요?

A_ 우리가 화가가 되려고 그림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기초교육으로 그림을 그리고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치 이걸 잘하면 꼭 화가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미술 재료비가 많이 드니까 학비가 없어서 재료를 못 가져가면 미술시간에 혼난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 게 악영향이 되어서 끼는 많은데 그림과 멀어진 친구들이 많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끼, 흥이 많아요. 노래방이라는 게 생겨서 요즘은 노래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문화의 보급으로 노래가 생활 속에 파고들어온 것처럼 그림도 생활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끼와 능력은 다 갖추고 있어요. 어떤 풍경을 보든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 다들 할 수 있는데, 그림은 화가만 그리는 거야, 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깨트리려면 기초교육과 문화센터나 문화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서 누구나 할 수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4 2018-02-14 오전 8:54:10


2016년 아라아트갤러리에서 전시를 연 김종수 화백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해요.

마흔 살쯤 러시아에 한 달간 그림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곳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정장을 입고 공연장에 가서 오페라와 연극을 감상하고, 휴일에는 누구든지 화구를 메고 나가서 그림 그리는 걸 즐기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근데 참 잘 그리더라고요, 하하. 집에 방문을 해보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며느리까지 온 가족이 화가 수준이었어요. 그만큼 일상에 그런 문화가 배어있는 점이 부러웠는데 우리도 모두 그리는 문화가 익숙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_ 미술교육정책이 일상적으로, 시민교육적인 측면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미술전시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미술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_ 음악은 귀로 듣고 느끼는 것처럼 그림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림은 보이는 만큼 자신이 감흥을 받고, 그게 제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처음부터 어렵다, 나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고정관념을 못 깨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미술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행사 속에 많이 들어가서, 미술이 간단하고 재밌다는 개념을 새롭게 줄 수 있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축제가 있다면 특정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모든 구색을 갖추어서 미술, 음악, 무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5 2018-02-14 오전 8:54:11



2016년 제10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수상

Q_ 성북문화원과는 성북동 문화재야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시회도 하셨고, 성북미술협회를 만들 때 강성봉 사무국장도 조금이나마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문화원에 대해 받은 느낌과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A_ 문화원은 옛 자원들을 발굴하고 미래에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북문화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옛 명인, 명가를 찾아내고 문하생들을 많이 배출해서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Q_ 칭찬 감사합니다, 하하. 그러면 처음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성북구는 과거부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살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느낌입니다. 성북을 대표하는 예술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꿈꾸는 성북은 어떤 모습일까요?

A_ 저는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뒷받침은 못해주더라도 선배들이 터전을 마련해서 저와 같은 화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제가 그림으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는 상태니까 우리 후배들을 위해 그런 터전을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걸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선배들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도와달라고요. 지역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부터 작업을 해야겠죠. 그런데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6 2018-02-14 오전 8:54:11

요 앞 공원에 연극인을 위한 연습장과 공연장을 만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공원이 위치적으로 좋은 만큼 모든 예술인, 구민들이 놀러 와서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예술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너무 아쉬워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공간은 평균을 맞춰서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소회의실, 공연장, 연습실, 전시장 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_ 이제 2017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북미술협회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_ 개인적으로는 내년 1월 2일에 삼청동에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은 한 해가 시작하고 시무식을 하는 의미도 있고, 어릴 때는 어른들에게 세배하고 떡국도 나눠먹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날짜를 1월 2일로 잡고, 초대한 손님들과 떡국 한 그릇씩 나눠먹고 싶은 마음으로 2주 동안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북미술협회는 아직까지 두 살밖에 안 되었으니 할 일이 참 많아요. 일단 우리 성북 지역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협회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싶어요. 또 협회 회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활동의 폭을 넓혀서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화가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과도 그런 방향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Q_ 네, 선생님의 개인전과 성북미술협회의 미래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술이 현대사회에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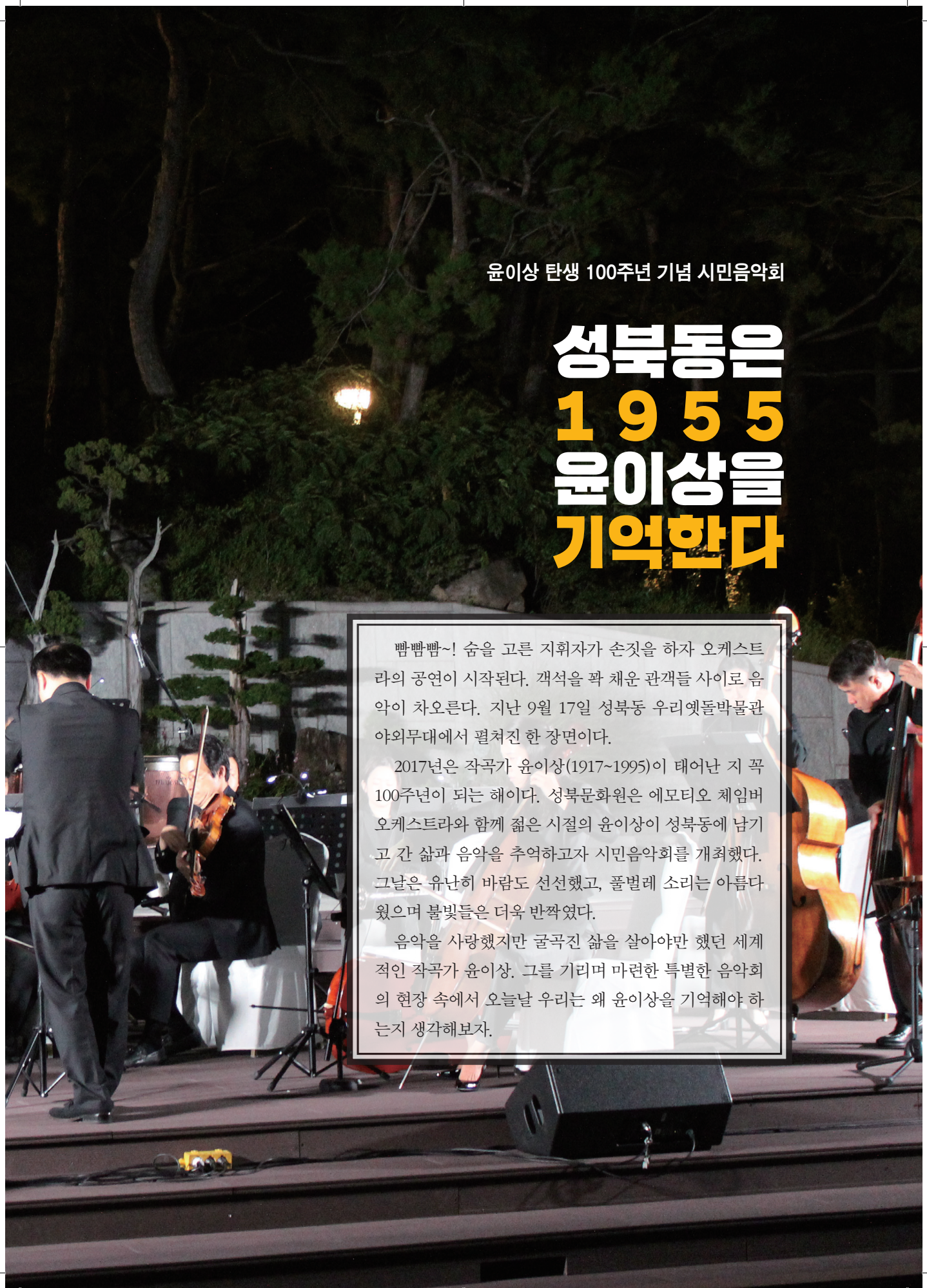
A_ 우리 모든 삶 속에 예술, 특히 미술의 의미와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옷을 입고 화장하는 것부터 미에 대한 감각적인 것은 모두 미술로부터 나온 것이니까요. 단지 이것을 미술이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죠. 일상 속의 작은 물건 하나도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미술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Q_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술과 성북구에 대한 애정이 진하게 느껴진 이야기들이었어요. 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 **정리**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37 2018-02-14 오전 8:54:11


리와 함께하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음악회
은 1955 윤이상을 기억한다
2017. 9. 17.(일) 저녁 6:30
우리옛돌박물관(성북동)
주최 eb 성북구청 윤이상평화재단 주관 성북문화원 에모티오 체임버 오케스트
후원 ㈜컬처리액션 극단더늠 공연문의 ☎02-765-1611
YAMAHA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음악회

성북동은 1955 윤이상을 기억한다

빰빰빰~! 숨을 고른 지휘자가 손짓을 하자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시작된다. 객석을 꽉 채운 관객들 사이로 음악이 차오른다. 지난 9월 17일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한 장면이다.

2017년은 작곡가 윤이상(1917~1995)이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성북문화원은 에모티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젊은 시절의 윤이상이 성북동에 남기고 간 삶과 음악을 추억하고자 시민음악회를 개최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도 선선했고, 풀벌레 소리는 아름다웠으며 불빛들은 더욱 반짝였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굴곡진 삶을 살아야만 했던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그를 기리며 마련한 특별한 음악회의 현장 속에서 오늘날 우리는 왜 윤이상을 기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우리옛돌박물관 야외무대 객석을 넘치도록 채워준 관객들



식전공연_'성북장애청소년합주단'이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0 2018-02-14 오전 8:54:23



단막극 〈에필로그〉_ 극단 더늠의 뮤지컬 공연.
윤이상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공연음악이 흘러나왔다.



'해설과 함께 듣는 윤이상 음악과 가을밤의 클래식'_
아마빌레 뮤직컨설팅 앤 리서치 홍석주 대표가 윤이상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1 2018-02-14 오전 8:54:27



'해설과 함께 듣는 윤이상 음악과 가을밤의 클래식'_
다니엘 전의 지휘와 함께 에모티오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윤이상에게 바치는 노래'_싱어송라이터 백자의 창작곡 공연.
윤이상과 관련한 자신의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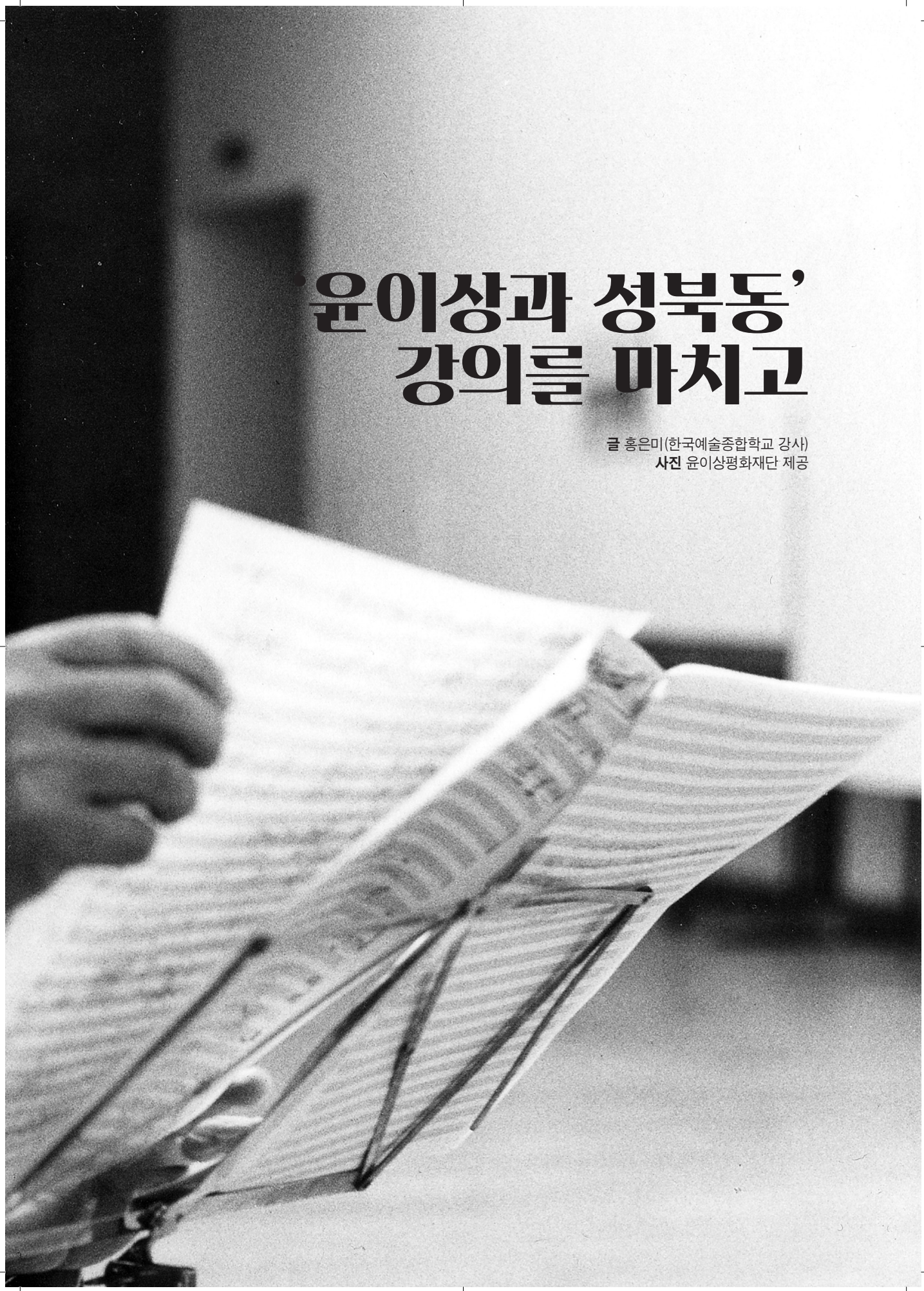
음악회의 진행을 맡은 박윤신 아나운서의 마무리 인사.



음악회와 함께 무르익어 빛나던 성북동의 모습.

정리 고하나(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 사원)





‘윤이상과 성북동’ 강의를 마치고

글 홍은미(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사진 윤이상평화재단 제공


휴식 중인 윤이상, 이수자 부부


백남준(왼쪽)과 윤이상


독일 음악가들과 나눈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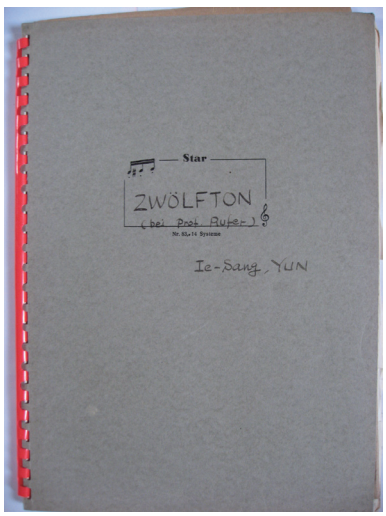
윤이상(1917~1995)이 1955년 『새벽』 송년호에 남긴 '20세 청년이 되어서'라는 글을 읽으면 불혹의 나이에 이른 한 한국 작곡가가 지난 20년간 "얼룩진 민족의 운명"과 함께 하느라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작품세계를 정리하며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고자 하는 당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다. 하다못해 평균수명 60보다 20년을 더 살아야만 한다는 의지까지 불태우며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구의 작곡가에 뒤지지 않을 만큼 작품을 남기고자 하는 계획도 계획이지만 그보다 나의 뇌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은 "앞으로 40의 반을 잘라 20년을 교육과 사회와 국가에 바치기 위해 떼어놓는다."라는 문구다. 왜 그것이 불가능했는지 항상 가슴이 아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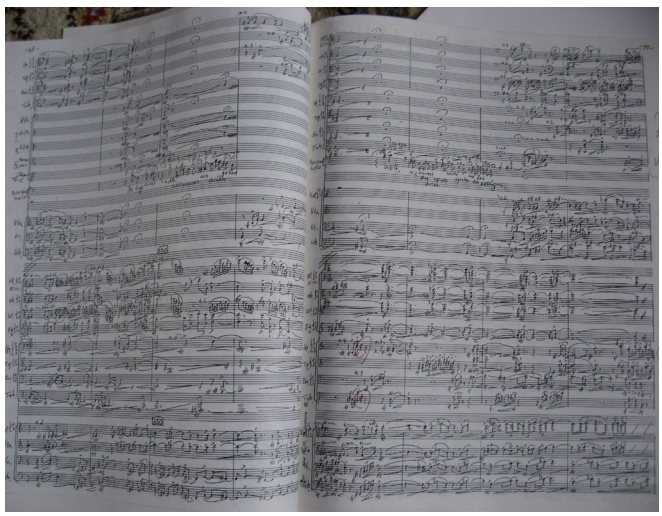
그는 또 이렇게 썼다.

> "그러나 암만 연령을 뒤로 돌이켜도 사회조직이나 국가시책이 예술행위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기의 포레나 랄로를 육성한 프랑스라는 나라의 예술적 토양은 낭만에서 후기낭만으로 이행하는 시대적인 추진력이 파도처럼 억세었다. 우리나라처럼 꺼질 듯 말 듯 한 등잔불 같은 예술의 터전에서 기껏 마음을 돌이켜 가다듬어보았댔자 지난 40년보다 더 험악한 지경이면 어찌하려는고. …(중략)… 이 말은 어느 예지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의 지성에 못을 박는 말로서 명각할지어다."

아쉽게도 이렇게 글 말미에 그가 우려했던 대로 여전히 우리는 예술의 터전을 닦지 못한 것 같다. 통영에서나 부산에서나 성북동에서나 윤이상은 항상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예술인들과 협력하여 타개책을 얻으려 노력하였지만 당시에는 나라 전체의 기반이 흔들리던 상황이니 불가능했다 치고 이후 반세기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6 2018-02-14 오전 8:54:36





윤이상이 생전에 남긴 악보

도 더 지난 지금쯤은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그가 유럽에서 이룬 업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무작정 해외 유수의 기관에서 내린 평가의 권위만을 받아들인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우기만 열심히 하는 어린 학생들과 같다. 윤이상이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음악계에서 그의 반생인 39년 동안 한결같이 얼마나 당당히 자국의 문화를 고귀한 것으로 인식시키는데 진력했는가를 우리가 진정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예술인들을 우리 손으로 길러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긴 한국의 문화는 특정 시대의 것만이 아니요 특정한 유형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또 다른 윤이상'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윤이상 이전의 윤이상은 누구였을까? 윤이상이 남긴 글들에서 몇몇을 발견할 수 있는데 성북동과 관련해서는 단연 채동선(1901~1953)을 꼽을 수 있겠다. 채동선의 죽음 앞에 윤이상은 다음과 같은 회한을 털어놓았다.

"고 채동선씨는 일찍이 독일에 유학하여 우리나라에 서구의 악단의 냄새를 도입했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면모를 갖춘 가곡을 남겼고 실내악과 합창의 작품과 또 이런 음악양식의 보급에 직접간접의 지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이다. 8·15 이후 민족진영에서 강직하므로 해서 동지 중에서도 오해는 샀으나 앞장서서 일했고 그러기 때문에 좌익으로부터 늘 위협 앞에 섰었다. …(중략)… 검은 무명 한복에 대추씨 같은 마르고 곧은 체구를 담은 고인은 아수운 차 한잔을 앞에 놓고 통렬히 민족의 운명을 논하고 문화정책의 경륜을 토로하군 했는데 그가 그리 곤란했어도 남의 추잡함을 보곤 못 참았다.

그의 병에 기술의 최선을 다한 서울 의대에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나 단시일에 병명이 여럿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7 2018-02-14 오전 8:54:37

으로 이동한 후 급기야는 작고하고만 이 불우한 악단선배의 직접의 사인은 貧寒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못 먹어서 괴로웠고 괴로워서 병났고 병으로 쇠진해가는 육신을 지탱할 영양을 注給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우리는 예술이 지금의 국민 대중에게 영향력을 못 가진 것을 한탄하는 동시에 유능한 예술가들이 계획치 못하는 것을 한탄한다. 작금 우리 예술계는 부분적인 활기를 띠고 있으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 문화인들이 의식하여 민족에 유산을 남기려는 각고면려가 더러는 객혈하고 더러는 졸도하여가며 그들의 사명을 계속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동안에 대중은 문화라는 영양을 조금씩 섭취해가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문화인은 빈약한 그의 혈관에서 피를 뽑아 민중의 혈관 속에 수혈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비록 부산 피난시절 생을 마감한 채동선과 성북동을 함께 거닐지는 못했으나 1953년 휴전 후 서울로 이주한 윤이상은 성북동에 집을 구해 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돈독히 지내며 선배작곡가가 유언한 한국교향악운동과 더불어 예술과 예술인의 지위를 확립할 수 있는 운동을 이어가는데 매진하였다. 윤이상의 부인도 "유럽에서의 40년 고적한 삶을 생각하면 남편에게는 그때가 가장 인간미가 풍부하고 삶을 즐기며 산 한때"라고 회상하였다. 특히 그가 성북동에서 늘 어울렸던 사람은 시인 조지훈(1920~1968)인데 우리민족 전통유산의 뿌리와 줄기를 회복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든든한 동지였다. 윤이상은 이미 1948년 조지훈의 시 〈고풍의상〉에 곡을 붙인 바 있는데 외형상 피아노 반주가 붙은



부인 이수자 여사와 함께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8 2018-02-14 오전 8:54:37


1


2


3


4

1 만년의 윤이상 2 첼로를 든 젊은시절의 윤이상 3 제자들과 함께 4 지인들과 함께

서구의 예술가곡 풍이기는 해도 당시의 여느 가곡과 다르게 한국의 고전적인 멋을 노래한 시에 부합하는 섬세한 운율을 구현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동유럽의 민족 음악가들을 봐도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야는 역시 민족의 언어가 개입한 경우이기에 그가 만일 고국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은 예술가곡의 중흥기를 만나지 않았을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지점이다. 더불어 비전을 더욱 뚜렷이 세우고 그 꿈을 향해 내달은 청장년 윤이상을 느낄 수 있는 성북동이기에 그의 가장 찬란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받아주신 현재 주민들께 감사할 따름이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49 2018-02-14 오전 8:54:38



보문동의 골목

보문동에서 딴생각하기

글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보문역_사거리

여기서 1111번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벌써 세 번째 목격했다. 오늘 10시에 만나자고 한 M이 아직 오지 않은 까닭이다. 어느 스님이 쓴 책 중에『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제목만은 잊히지 않는다.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면 떠오르는 글귀다. 출근길에 버스 차창 밖으로 흘끔 보고 지나치던 이 장소를 오늘따라 눈여겨 보게 된다. M이 더 늦더라도 나쁠 건 없을 것 같다.

아침 10시, 보문역 사거리를 지나는 자동차들은 그리 많지 않다. 출근 시간 신설동 방면으로, 동망봉 터널을 지나 창신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로 한창 붐볐을 거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따뜻한 햇살에 잠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하다. 동편에 높은 산이나 빌딩, 아파트가 없는데다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햇살 한 번 잘 든다. 그 햇살을 받으며 뒤늦게 문을 여는 카페 주인의 등이 보인다. 사거리 남쪽으로는 키 큰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이 호위한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있다. 도로 끝에 어렴풋이 보이는 건물은 신설동의 대광고등학교와 수도학원이다. 학창 시절 미술 시간에 배운 원근법이 떠오른다. 미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원근법은 서양 근대 회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일관된 시선 속에 드넓은 풍경을 잡아두는 방법. 그런 점에서 보문동은 굉장히 근대적인 장소이다. 보문역에서 저 신설동 로터리까지 1km 가량 쾌적한 원근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 원근법의 화폭 위에 점 하나가 들어오더니 햇살 속에 길게 늘어난다. M이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0 2018-02-14 오전 8:54:40

#보문사

M과 처음 가기로 한 곳은 보문사이다. 보문사는 안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보문동에 들어올 때 정면에 보이는 절이다. 숲 한가운데 하얗고 기다란 구층탑이 돋보일 뿐 아니라 보문동의 동명을 이 절의 이름에서 따왔다고도 하니 언제 한 번 꼭 가보마 하고 다짐해 두었던 곳이다. 그곳을 오늘에야 M과 함께 방문해 보는 것이다. 보문역에서 발을 뗀 지 거의 1분 만에 절의 일주문이 나타난다. 일주문은 이층 누각으로 지어졌는데 편액을 '호지문(護持門)'이라고 하였다. '불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문'이란 뜻이다. 지방의 여느 산사처럼 깊숙한 진입로가 없는 대신 보문사 경내에는 많은 길들이 이곳저곳으로 잎맥처럼 뻗어 있다. 범종루 아래를 지나 대웅전으로 가는 길, 석굴암과 구층탑으로 가는 길이 나뉘어져 있고, 좀 더 올라가면 명상의 숲으로 올라가는 작은 산길이 있다.

대웅전으로 먼저 가 본다. 크지 않은 규모에 단청이 화려한 대웅전 안에는 부처님(불상 또는 석가모니상으로 불러야 하겠으나 불자도 아닌 나는 불상을 그냥 부처님이라 부른다)이 모셔져 있고, 부처님 뒤로는 색 바랜 탱화 석 점이 걸려 있다. 내부가 어두워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신발을 벗고 들어가 부처님 앞에 서 본다. 가운데 앉아 계신 부처님에게 나는 미소와 앉는 자세를 배워보기로 한다. 집착을 버린 지극히 자유로운 사람의 표정과 자세는 이런 것인가? 이심전심. 깨달음은 미소와 몸가짐만으로도 전해진다. 부처님 뒤에 걸려 있는 탱화에도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불상과 다른 점은 부처님 혼자 계



보문사 대웅전과 앞마당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1 2018-02-14 오전 8:54:43

“부처님을 둘러싼 무리는 각자 다른 자세로 서 있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한데 어울려 앉고 선 모습이 퍽 조화롭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탱화에서 원근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가 높을수록 위대한 존재일수록 크게 그려진다. 조선의 화가들은 풍경의 원근보다 마음의 원근이 더 중요했나 보다.



보문사 석가불도
(普門寺 釋迦佛圖,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호)

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살, 제자, 신중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다. 탱화 속 부처님은 깨달음을 미소가 아닌 말로써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부처님을 둘러싼 무리는 각자 다른 자세로 서 있으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한데 어울려 앉고 선 모습이 퍽 조화롭고 여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탱화에서 원근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깨달음의 경지가 높을수록 위대한 존재일수록 크게 그려진다. 조선의 화가들에게는 풍경의 원근보다 마음의 원근이 더 중요했나 보다.

대웅전과 그 밖의 부속 건물로 둘러싸인 네모난 뜰은 넓지 않다.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집 마당보다도 좁다. 그러나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부처님의 품? 아니 손바닥이라 생각해 보니 재미있다. 손오공이 벗어나지 못했던 그 작은 세계. 어쩌면 우리를 감싼 이 서울도 지구도 대우주도 부처님의 손바닥에 다름 아닐 것이다. 나와 M은 그 손바닥 어디쯤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 복잡한 마음이 한결 여유를 얻는다. 떠나기가 망설여진다. 그러나 보문사의 볼거리는 따로 있다지. 석굴암과 구층탑 같은. M이 다가와 소매를 잡아끈다. 이제 다른 곳에도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미타사

이후 30분 정도 보문사 경내를 둘러보다가 보문사를 나와 바로 옆의 미타사로 발길을 돌렸다. 미타사는 보문사와는 엄연히 다른 절이지만 별명은 같다. 뭔고 하니, ‘탑골승방’. 미타사 일주문 옆에 세워둔 안내판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2 2018-02-14 오전 8:54:43

950년에 혜거국사가 미타사를 창건하고 1047년에 석탑을 세우는데 이 때 세운 탑이 이 근처의 상징이 되어 조선시대에 이곳을 탑골(塔洞)이라고 부르면서 미타사를 보문사와 함께 탑골승방이라고 일컫게 된다.

이로 인해 미타사는 옥수동의 두뭇개승방, 석관동의 돌곶이승방, 숭인동의 새절승방(청룡사)과 함께 비구니들이 거처하는 성 밖의 4대 승방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된다.



미타사 석탑

'탑골'이라는 말이 왠지 귀에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M에게 비치니 '탑골공원'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얘기해 준다. 그래, 탑골공원이 있었지. 바로 원각사 십층 석탑 주변에 만든 공원에 붙인 이름. 억불(抑佛)의 나라 조선의 서울에서 몇 안 남은 불탑들은 고명딸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으리라.그래서 탑이 하나라도 남아 있는 동네면 '탑골' 혹은 '탑동'이라 부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럼 탑골승방의 탑은 어디에 있을까? 수수께끼의 답을 나와 M은 미타사 대웅전 뒤편 언덕 높다란 계단을 올라가서 찾았다. 귀퉁이가 여기 저기 깨어진 아담한 돌탑. 흔히 보던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탑들처럼 높고 균형 있는 탑은 아니다. 그러나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훌륭한 탑들보다야 작지만 엄연히 나와 M의 키보다도 큰, 아니 나와 M의 키를 합해도 미칠 수 없는 높이에 탑의 상부가 있다. 하지만 그 높이와 생김새보다는 탑이 가진 시간의 깊이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 탑의 양식은 분명 고려시대의 것인데, 그렇다면 거의 천 년이나 이 자리에 온갖 풍설을 맞으며 서 있었다는 것이다. 천 년이란 시간은 두뇌로 헤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느낌은 역사나 전생이란 개념을 들고 와야만 비로소 설명 가능해진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시간의 원근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나와 M은 탑을 만져보기도 하고 주위를 돌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는데 문득 점심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결국 화제는 '보문동의 맛집은 어디있나?'로 흘렀고 우리는 서둘러 언덕을 내려왔다. 인간의 시간이란 결국 밥으로 시작되는군. 다시 속세를 향해 걸어 나가는 우리를 내려다보는 미타사 돌탑의 표정은 어땠을까? 그걸 나와 M은 채 확인하지 않고, 바쁜 걸음으로 미타사를 빠져나왔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3 2018-02-14 오전 8:54:45



안암을 아남?

글 민문기(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안암동2가 일대의 한옥밀집지역.
나무로만 만든 전통한옥이 아닌, 그 위에 시멘트와 타일을 덧붙여 보강한 개량식 한옥이다.

안암동이라 하면 보통 무엇을 떠올릴까? 안암동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고려대? 수많은 젊은이들? 좁고 기다란, 북적북적한 거리와 거기에 있는 다양한 맛집들? 이런 것들에 비해 한자 '바위 암(巖)이 들어가니 큰 바위를 볼 수 있지 않을까?'같은 생각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일 테다. 아무튼 안암동이라 했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고 무엇을 보게 되리라 생각할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남녀노소 일반인 1,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으나 해낼 능력도 의욕도 없었기에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기로 했다. 두 발로 직접 가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기로. 안암동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인상 깊으며,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골목길에서

내 선입견 때문이었을까? 안암동에 들어서면 활기찬 대학가가, 화려한 상점가가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보문역에서 성북천을 건너 도착한 안암동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바로 한옥이었다. 지나가는 골목마다 단층의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전주 한옥마을을 따라 안암 한옥마을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 했다. 물론 여기에 싸구려 한복 대여업체도 없고, 사진 찍을만한 '핫'한 장소도 없지만 말이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4 2018-02-14 오전 8:54:47

#용문중 · 고교

안암 한옥마을을 벗어나 언덕을 따라 오르다보니 멀리 상아빛을 띈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 상층부에 거대한 두 글자가 붙어있었다. 용. 문. 그 유명한 용문이로구나. 생각해보니 이 학교의 위치는 고지대라서 경관이 아주 좋고, 앞으로는 성북천이 흐르며 뒤로는 개운산이 버티고있는, 말 그대로 배산임수의 명당 중에 명당이다. 옛날 많은 유력자들이 이 땅을 탐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일까? 코미디언 유재석, 영화배우 한석규, 축구감독 황선홍 등 기라성같은 인물들이 이 곳에서 배출되었다.


용문중 · 고교 정문

건강한 육체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는 용문중 · 고교. 이 곳을 3년 다니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다들 맑은 정신을 가졌을테고. 이것이 많은 유명인사들이 가진 성공의 비결인가! 하지만 나는 이미 이른 새벽 우물에서 맨 처음 길어온 정화수처럼 맑은 정신을 가졌으므로 더 이상 오르는 것을 멈추고 발길을 돌렸다.

#손기정 집터

용문중 · 고교를 나와 우로 좌로 이리저리 골목을 꺾어들어가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땄음에도 가슴팍에 새겨진 일장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던 마라토너 손기정의 집터다. 손기정은 해방 후 안암동에 거주하며 자신의 집을 '마라톤 선수 합숙소'라 이름붙이고 전국의 마라톤 유망주 20여명을 뽑아 직접 먹이고 재워가며 훈련을 시켰다. 1947년 보스


손기정 집터 위에 세워진 다세대주택
손기정이 살던 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기다란 골목에 죽 늘어서 있는
똑같은 모양새의 다세대주택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5 2018-02-14 오전 8:54:53

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서윤복, 1950년 보스턴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 · 은 · 동을 휩쓴 한국의 삼인방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등이 모두 이 곳에서 손기정에게 가르침을 받은 선수들이었다. 물론 지금은 손기정이나 그 제자들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 곳에는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은 모양의 다세대 주택들만이 죽 늘어서 있는데, 손기정 집이 있던 그 자리도 그 중 하나가 들어서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때 이 곳에 손기정이 살았었다는 것을, 이 곳에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을 키워냈다는 것을 가슴에 품기로 하고 그의 가르침이라도 받은 양 다음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본다.

#개운사길

매일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만 두들기다 오랜만에 힘차게 내달리니 무척 힘이 든다. 심장은 나보다 더 빨리 뛰고, 숨을 내뱉느라 벌려진 입은 환상의 커플인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강제로 이별하게 만든다. 솔로 만세. 큰 길을 향해 달려나와 왼편을 바라보니 높다란 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힘겹게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을 걷다보니 왜 안암동을 안암골이라 부르는지 알 것 같다. 골짜기는 산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구나. 깨달음을 얻었노라 뿌듯해하며 걷다보니 안암역 사거리에 다다랐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걷다보니 또 다시 깨달음을 얻는다. 개운사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개운사길이로구나. 자칫 깨닫지 못할 뻔 했다. 이곳의 모습은 여느 대학가처럼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 그리고 원룸만이 그득했기 때문이다.

#개운사

개운사길의 큰 줄기를 따라 걷다보니 거대한 문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용이 하늘을 향해 휘돌아치고 있는 거대한 기둥 두 개와 그 위에 얹혀진 웅장한 지붕이 만들어낸 일주문. 그리고 한가운데 현판에 새겨진 글씨 개운사. 여기가 바로 개운사길의 주인공인 개운사로구나. 그런데 문을 지나고나니 거대한 경고문이 붙어 비계만 설치한 채 공사를 멈춘 두 동의 건물이 의아함과 함께 을씨년스러움을 안겨주었





안암동을 다니다보면 지겹도록 만나게 되는 하숙집 · 원룸 홍보 광고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6 2018-02-14 오전 8:54:57



개운사 일주문


공사를 멈춘 채 경고문이 붙은 두 건물


연등으로 장식된 개운사 언덕길


개운사 대웅전

다. 의아함은 어째서 사찰 속에 저런 것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고, 을씨년스러움은 폐건물 특유의 스산함과 '부동산 붐'이라는 현대사회의 싸늘함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잠시, 색색의 연등으로 장식된 언덕길을 오르니 진정한 개운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개운사는 조선이 건국된 지 5년이 흐른 1396년, 왕사인 무학대사가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영도사였으나 조선 중기 개운사로 이름을 바꿨다. 개운사는 조선 초기부터 이어져온 찬란한 역사도 품고 있지만, 근현대 불교 교육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졌다. 일제강점기에는 근대 불교의 대석학인 석전 박한영 스님이 머무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1990년대에는 지금은 김포로 이전한 중앙승가대학이 있었다. 그래서일까? 갑자기 무엇인가 공부하고 싶다는 욕구가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하지는 않는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7 2018-02-14 오전 8:55:04

#대원암과 보타사

개운사를 빠져나와 개운사의 암자이자 석전 박한영 스님이 머물렀던 대원암으로 향한다. 가는 길 좌우에 우후죽순처럼 걸려 있는 하숙집과 원룸 광고가 잠시 잊었던 사실을 문득 떠오르게 한다. 아, 대학가였지. 개운사 경내의 향취에 젖어 잊고 있었다.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니 먼발치에 조그마한 암자가 하나 보인다. 저것이 필시 석전 박한영 스님이 머물렀던 대원암일 터. 가까이 다가가보니 기다란 표지판 하나가 눈에 띈다. '탄허스님께서 신화엄경합론을 번역하신 곳' 자신의 입적일을 정확히 예언했다던 탄허 스님이 이 곳에 머물렀었구나. 아직 살아계셨다면 딱 그것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숫자 여섯 개. 대원암 뒤편에도 탄허스님 표지판과 꼭 닮은 것이 하나 세워져 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의 연구실이 있던 곳' 아쉽다. 지금 연구실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텃밭 한 켠에 표지판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니.

그렇게 보타사로 향하려다 금동보살좌상이 잠시 대원암 방 한 칸을 빌려 살고있다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대원암으로 들어가 금동보살좌상을 마주한다. 여태껏 보지 못했던 자유분방한 자세와, 신묘한 표정, 그리고 우아하게 뻗은 손 끝까지. 1미터도 안 되는, 그리 크지 않은 키지만 그 아우라만큼은 대원암을 넘어 안암골을 메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걸을 때마다 자각자각 소리가 나는 운치있는 길을 지나 보타사에 다다랐다. 그리고 조금 전 금동보살좌상의 아우라가 안암골을 메울 법하다고 생각한 것을 반성했다. 마애보살좌상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보타사 대웅전 뒤편 암벽에 자연스럽게 새겨진 이 불상은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후기에 제작된 것으



대원암



'석전 박한영 스님의 연구실이 있던 곳' 표지판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보물 제1818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보물 제1828호)

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수백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크게 상하지 않았음이 무척 신비롭게 다가왔다. 거기다가 부처님 얼굴에 담긴 아주 옅은 미소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오묘한 눈빛은 나도 모르게 모든 죄를 벗어던지고 고해를 하게 만든다.

#고려대학교

고해를 마치고 죄를 씻어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이번 목적지는 안암동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려대학교다. 사실 안암동에 들어선 순간 이미 고려대 내부에 들어와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온통 고려대 건물들이 있고, 고려대 단체복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갑자기 묘한 압박감이 밀려온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를 밤새 견뎌냈던 항우의 심정이 이러할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이 있어~ …"

조지훈의 호상비문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기다보니 어느덧 정문이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눈 앞에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59 2018-02-14 오전 8:55:14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그리고 멀리 보이는 본관



고려대학교 본관(사적 제285호)



고려대 본관의 유럽 중세풍 성가퀴
고려대 건물 대부분 이런 성가퀴가 조성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현재는 대학원, 사적 제286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0 2018-02-14 오전 8:55:19

넓게 펼쳐진 중앙광장과 그 끝에 보이는 본관이 고려대의 웅대함을 대변하는 듯하다. 물론 그 사이 위치한 누군가의 동상이 경관을 해치긴 하지만, 중요한 인물이겠거니 하고 만다. 중앙광장을 지나 찾아간 본관은 1934년 세워진 건물로,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본관으로 쓰이던 것이다. 현재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인데, 그래서인지 새로 지어지는 고려대 건물들도 모두 고딕 양식을 본따 비슷하게 짓고 있다. 특히 중세 성관의 성가퀴는 고려대 건물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인듯하다.

본관 우측, 한겨울임에도 아직 단풍이 지지않은 언덕을 오르면 본관처럼 고딕풍의 모양새를 가진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있다. 이 건물도 1937년 세워진 보성전문학교의 건물로, 현재 사적 제286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는 고려대의 수많은 공부노동자들을 위한 대학원 건물로 쓰이고 있다.

#참살이길

고려대 캠퍼스만 둘러봐도 하루이틀은 훌쩍 넘길 것 같아 다시 빠져나왔다. 나오는 길에 아까는 보이지 않던 일군의 시위대가 모여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적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시위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맛이 쓰다. 씁쓸한 입 속을 달래기 위해 달짝지근한 무언가가 간절해졌다. 카페와 음식점이 즐비한 고려대 앞의 명소, 참살이길로 향했다.

참살이길 입구에 섰다. 사거리 맞은 편 개운사길의 2차선과는 다르게 1차선으로 곧게 뻗어있다. 그리고 길의 양 옆으로 음식점, 카페, 술집 등의 먹을 곳과 노래방, PC방 따위의 놀 곳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차도가 1차선으로 좁으니 인도의 폭이 비교적 넓다. 걷기 좋은 길이구나. 오가는 사람이 참 많겠다.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다녀도 좋고,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러 나와도 좋은 길이겠구나.

#보제원터

참살이길 끝에 다다라 길을 건너니 횟집 앞, 보도블럭이 끝나는 지점에 표석이 하나 세워져있다. '보


참살이길


보제원터 표석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1 2018-02-14 오전 8:55:23

제원터. 1393년-1895년 여행자의 무료숙박과 병자에 약을 주던 곳' 조선시대 응급구조기관인 진제장(賑濟場) 중 하나가 여기였구나. 나도 나름 안암을 여행 중인 여행자라면 여행자인데 공짜로 뭐 안 주려나. 표석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있으니 바로 옆 버스정류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본다. 괜히 민망해서 한 마디 던지고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에잇 이 표석은 뭐 이리 촌스럽고 못 생겼어!"

#대광아파트

안암동과 동대문구의 경계를 따라 죽 걷다보니 골목 안으로 나이가 좀 있어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안암동2가~3가에는 70~80년대 세워진 10층 안팎의 아파트 세 단지가 옹기종기 모여있다. 1969년에 지어진 안암아파트, 1983년에 지어진 삼익아파트, 그리고 1971년에 지어진 대광아파트. 오늘 마지막 목적지로 삼은 곳은 이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있고, 가장 많은 세대를 품고있는 대광아파트이다. 대광아파트를 안암동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삼은 것은 사실 안암동의 동명 유래 때문이다. 안암이란 20여 명이 앉아 편히(安) 쉴만한 바위(巖), '앉일바위'가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그 바위가 있는 곳이 바로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이기 때문이다.

대광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에 도착했다. 무척 가파른 언덕을 쉼없이 올라왔더니 숨이 가쁘다. 이 정도면 앉아 쉴 수 있는 바위가 아니라 앉아 쉬게 만드는 바위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누구든 여기까지 올라오면 쉬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숨을 고르고나니 '앉일바위' 생각이 났다. 어딨지?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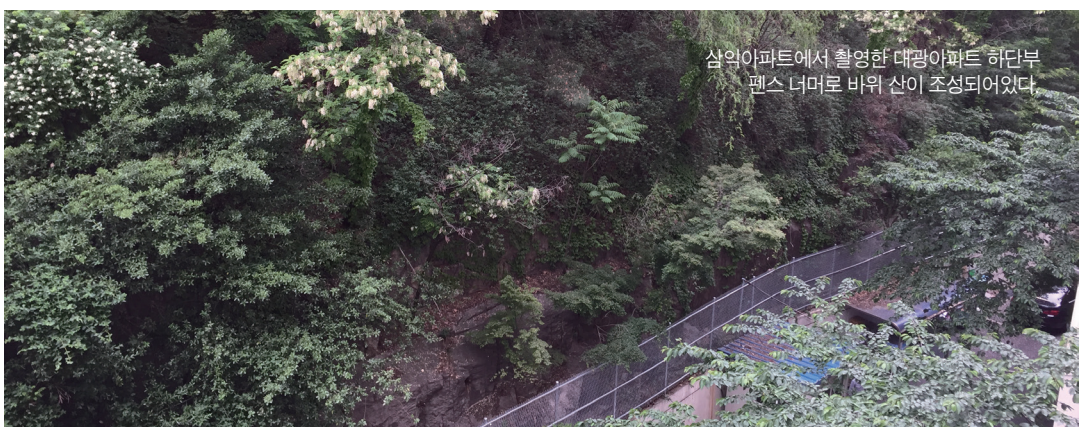


대광아파트 전경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위치한 주차장



삼익아파트에서 촬영한 대광아파트 하단부
펜스 너머로 바위 산이 조성되어있다.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큰 바위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주차장과 빼곡이 들어선 차들만 있을 뿐 바위는 흔적조차 없다. 그런데 그 흔적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삼익아파트 단지 안에서 대광아파트 쪽을 바라보니 펜스 너머로 바위 산이 눈에 들어왔다. 아하. 대광아파트 단지 '안'에 바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광아파트 단지 '아래'에 바위가 있는 거구나. 결국 '앉일바위'는 한때 사람들이 올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이제는 대광아파트의 주민들이 보금자리로 삼아 편히 쉬는 공간이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나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진다.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자니 안암동에 발을 들이기 전의 의문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저 빨리 '앉일바위'처럼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었다. 어차피 '안암'하면 떠오르는 상(像)이야 저마다 다 다를 것인데 그걸 특정해서 뭣하랴 싶다. 천 명이 있으면 천 개의 생각이 있고 만 명이 있으면 만 개의 세상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내 세상으로 얼른 가자. 발길을 돌렸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3 2018-02-14 오전 8:55:29

2017년 성북문화원이 만난 역사·인물 이야기
4.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4.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돌아보며

우리의 4월은 다시 타올랐다

글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올해 달력 속 4월 19일은 여전히 검은색이었다. 어떤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날을 기리는 정성과 열의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닐 테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생일과도 같은 4.19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공휴일인 개천절이나 한글날보다 덜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기념행사의 수도 적어서 매년 정부가 수유리 국립묘지에서 공식행사를 여는 것 외에 몇몇 관련 지자체와 보훈단체가 주축이 되어 기념 행사를 가질 뿐이다. 2.28을 대구에서, 3.15를 마산에서, 4.19를 서울 강북구에서 기념한다. 50여 년 전 뜨겁게 타올랐던 혁명이 이제는 식은 재가 되어 봄이면 잠시 그 존재를 알리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식은' 혁명을 기념하는 일에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뒤늦게 동참한 것은 2015년부터다. 4.18 고려대 학생 시위, 한성여고 학생 진영숙 양의 죽음과 유서 같이 4.19의 중요한 장소, 인물, 사건들이 성북 지역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기에 과감히 사업에 불을 지폈다.

2015년 처음 치른 기념 행사는 기념식, 학술회의, 공연이 결합된 실험성이 다분한 행사였다. 준비를 맡았던 문화원 직원들과 구 관계자들은 순국선열들과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4.19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생활과 연관지어 제시하는 것이 행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기왕의 행사들과는 다르게 참신한 행사를 기획해 보자는 거였다. 오늘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적합한 내용과 시사성 있는 주제가 필요했다. 2015년의 '성북, 4.19혁명의 북을 울리다', 2016년 '4.19혁명, 문화의 새로운 모색'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올해 주제도 그러한 지난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정해졌다. 혁명과 일상의 관계를 김광규의 시를 다리로 하여 접근해 봐도 좋을 것 같았다. 김광규 시인은 대학 시절 4.19를 겪은 세대로 1975년 데뷔 이후 무려 11권의 시집을 낸 성실한 시인이다. 혁명을 직접 다룬 시도 좋지만 그의 많은 시들은 혁명 뒤 무감각해진 일상의 모습을 차분한 어조와 평이한 시어로 드러낸다. 그런 시들에게서 전해 들을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았다. 다행히 출판사를 통해 시인과 연락이 닿았다. 홍제동에 사는 시인은 흔쾌히 행사의 취지에 동감을 보냈고 강연을 약속했다. 곧바로 행사 제목도 시인의 시 제목 그대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로 정했다. '혁명'이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비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감상적인 제목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혁명도 시간이 지나면 식고 무뎌지고 아련해지는 것 아니겠나? 혁명의 영광이 아니라 그 뒤안길을 더듬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좀 더 씩씩한 제목을 뽑아볼까 했지만 관두었다. 너나없이 선명함을 강조할 때 일부러 희미한 곳에 서는 것도 괜찮은 위치 선정이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4.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개회식과 포스터(2017. 4. 18)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5 2018-02-14 오전 8:55:32



김광규 시인의 강연

행사는 4월 18일 저녁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열렸다. 객석이 차자 배우 전소현의 시 낭독을 시작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와 〈아니다 그렇지 않다〉란 제목의 두 시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긴장감 가득한 드라마로 펼쳐졌다. 이어서 김광규 시인이 연단에 올랐다. 시인의 상냥해 보이는 눈에 반짝거리는 생기가 돌았다. 한평생을 저렇게 밝은 마음으로 살아오셨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강연의 구성은 그의 여느 시처럼 단순했다. 4.19 직후 나온 기념비적인 두 시 신동문의 〈아! 신화같이 다비데 군들〉과 김수영의 〈기도〉를 소개했고, 이어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어린 게의 죽음〉, 〈좀팽이처럼〉 등 그동안 시인이 발표한 시들을 읽어주고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적선동까지 나가서 데모했던 일, 4.19가 일어나던 해 대학에서 친구들과 토론했던 일들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시인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다. "보통 제 시가 쉽게 읽힌다고 합니다. 젊은 시인들 중에도 제 스타일을 본받아 쓰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시들이 제 시만큼 좋지는 않더군요. 제가 쉬운 시를 쓰지만 쉽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노시인의 지나친 자랑 같았지만 곱씹을수록 의미가 깊은 말이었다. 쉬운, 그러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말과 글의 세계. 다행히 시인은 거기에 이르는 법을 비밀에 부쳐두고 연단을 내려왔다. 청중들에게 숙제 하나가 남겨진 셈이었다. 쉬운 시, 쉬운 삶, 쉬운 혁명……??? 4.19혁명 57주년, 올해로 77세가 된 성실한 원로시인은 묵직한 화두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떠났다.

이어진 토크콘서트는 볼 만했고 들을 만했다. 볼 만했다는 것은 패널들의 훤칠한 외모와 미소 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6 2018-02-14 오전 8:55:35


토크콘서트(왼쪽에서부터 정재환, 김준현, 박광일)


빈티지프렝키가 다시 부른 4.19 혁명의 노래들

면면을 말하는 것이고, 들을 만했다는 것은 현대사와 현대문학사를 꿰찬 패널들이 풀어놓은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이다. 한글문화연대 정재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에서는 (주)여행이야기의 박광일 대표가 역사 파트를, 성신여대 문화내러티브전공 김준현 교수가 문학 파트를 맡아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주최 측에서 제시한 토크 주제는 여섯 가지였다. ①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② 왜 4.19혁명이 일어났나? ③ 한글세대 ④ 미완의 혁명 ⑤ 4.19와 문학 ⑥ 4.19가 던지는 질문. 다소 장황한 주제 선정이었으나 패널들은 각 분야와 시대를 넘나들며 알찬 이야기로 주어진 시간을 꽉 채웠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로 접어드는 당시 급박한 정치 상황 탓에 57년 전 이야기들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현장감 있게 들렸다. 특히 4.19가 '미완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모든 혁명은 미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모든 성취는 한 순간에 이룩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 인내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비로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4.19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나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독 춥고 길었던 올 겨울이 끝나가는 소리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들린 듯했다.

마지막으로 밴드 빈티지프랭키가 무대에 올라 〈유정천리〉, 〈사월의 깃발〉 등 4.19 혁명 때 부르던 노래들을 다시 불러 그날의 감동을 전해 주었다. 혁명은 식어도 노래는 남아 혁명을 불지피는 것일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되는 역설. 2017년 여전히 검은색이던 4월의 그날이 잠시 밝은 빛을 내며 타올랐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7 2018-02-14 오전 8:55:38



2017년 성북문화원이 만난 역사·인물 이야기
이육사 탄생 113주년 기념 문화제

이육사 탄생 113주년 기념 문화제 '청포도가 익어가는 골목'을 돌아보며

초인은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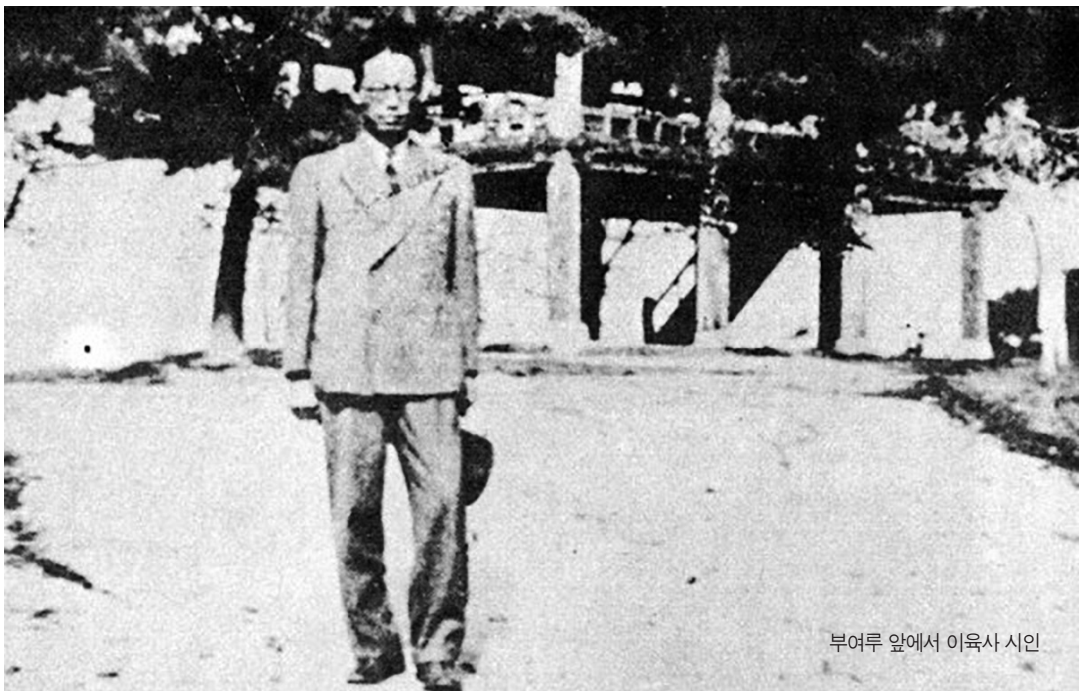
글 민문기(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사진 이육사문학관 제공

5월 18일. 이 날은 모두에게 어떤 날로 기억되어 있을까. 정확한 집계나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그게 아니면 영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배우 주윤발이나 곽도원의 생일로,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20세기 말 인기를 구가했던 아이돌그룹 젝스키스의 공식 해체 선언일로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5월 18일이라는 한 날을 두고 다양한 기억이 존재하지만 기억되지 못했던, 기억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독립운동가이자, 대표적 민족저항시인인 이육사이다.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는 1937년 가족들과 함께 서울 명륜동으로 주거를 옮겼고, 1939년 다시 성북구 종암동 62번지로 이사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여간 머물며 〈청포도〉, 〈절정〉 등의 대표적 작품들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육사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풍경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 속에 〈청포도〉, 〈절정〉 등을 써내려갔는지 관심갖는 이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성북문화원은 이육사를 기억하고자 했다. 기록 속 종암동 62번지를 직접 찾아나섰고, 지금은 빌라가 들어서버린 집터를 발견했다. 종암동에 스며있던 이육사의 기억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애썼다. 글을 썼고, 강연회에서 이야기했다. 종암동 62번지에 이육사가 살았었노라고. 그곳에서 시를 썼었노라고. 그리고 돈이 있건 없건, 여건이 되건 안 되건 이육사를 기념하자 외쳤다. 기억하자 결의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8 2018-02-14 오전 8:55:41



부여루 앞에서 이육사 시인



서대문 형무소 수감 당시 1934년 6월 20일 신원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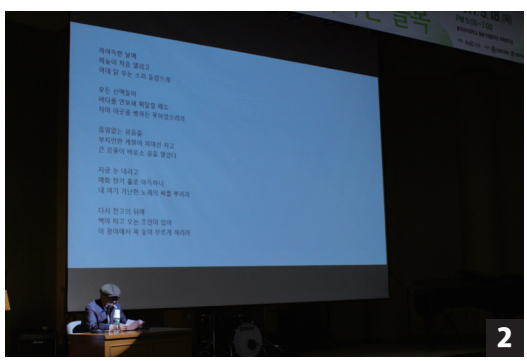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69 2018-02-14 오전 8:55:43

이육사 탄생 기념 문화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2016년을 처음으로 올해가 두 번째였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열정 하나로 진행했던 첫 번째 행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동덕여대 재학생 대표가 이육사의 〈청포도〉, 〈광야〉를 청아한 목소리로 낭독하니, 마치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동덕여대 합창단 동덕레이디스싱어즈가 가곡 〈청포도〉와 〈광야〉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려주었다.

이어 고려대 명예교수이자 우리 시대의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선생을 모셔 '이육사의 〈광야〉 읽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선생은 이육사가 뛰어난 진보주의자이며, 그의 시 〈광야〉는 민족 서정시라 주장했다. 그리고 〈광야〉를 문학적으로 분석하여, 이 시에 담긴 내용은 특정 장소나 특정 인물, 특정 시기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선 이육사야말로 불행한 세상에 점처럼 찍혀 있는 행복의 해방구와 같은 존재라 말했다. 참으로 묵직했다.

뒤이어 이육사 시인의 유일한 혈육인 딸 이옥비 여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황현산 선생의 강연이 마치 〈절정〉처럼 묵직했다면, 이옥비 여사의 강연은 〈청포도〉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아버지 이육사에 대해 회상하며, 삶을 되짚어 보았다. 말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고, 눈 또한 우리를 보고 있었다. 하









이육사 탄생 113주년 기념 문화제 '청포도가 익어가는 골목'
1 동덕여대 합창단 동덕레이디스싱어즈의 가곡 〈청포도〉와 〈광야〉 공연 2 황현산 선생의 '이육사의 〈광야〉 읽기' 강연
3 이육사 시인의 유일한 혈육, 딸 이옥비 여사의 강연 4 밴드 빈티지 프랭키의 공연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0 2018-02-14 오전 8:55:50


이옥비 여사

지만 시선 끝은 아버지에게 가 있었다. 이옥비 여사는 아버지 이육사의 생애를 먼발치서 바라보며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이옥비 여사의 강연이 끝나고, 밴드 빈티지프랭키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빈티지프랭키는 작년 이육사 탄생 11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육사의 시와 락을 결합시켜 만든 노래로 세상을 놀래킨 바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포도에 두 손이 함뿍 적셔지듯 이육사의 시 세계에 함뿍 적셔져 냉큼 그의 시로 노래 열 곡을 만들어 1집 앨범으로 엮어냈다. 이런 뮤지션이 이육사의 시로 만든 멋진 음악으로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해주니, 모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황현산 선생은 이육사의 시 〈광야〉 속 초인이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류라 했다. 비범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했다. 광야와도 같은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시대(천고의 뒤)가 오면 새로운 인류(백마탄 초인)가 나타나 시인이 숨죽여 부르던 그 노래를 목놓아 부르리라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새로운 인류.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 이육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초인은 지금, 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1 2018-02-14 오전 8:55:52

2017년 성북문화원이 만난 역사·인물 이야기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성북동발 신문화운동과 채동선의 음악 활동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성북동, 시민과 시인의 노래'를 돌아보며

글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성북동이 뭐길래?"

2017년 성북동은 몹시도 북적댔다. 봄부터 가을까지 손님맞이로 분주했던 성북동의 길들은 한가한 세밑이 다와서야 숨찬 가슴을 다독이고 있는 것 같다. '성북동 문화재 야행', '누리마실', '윤이상 음악제', 북정마을 '월월축제' 등 봄가을의 축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기적으로 진행된 역사문화탐방, 그리고 '성북예술동', '성북, 예술로 물들다'와 같은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품격 있고 소소한 전시회들이 성북동이라는 오선지 위에 한데 어울려 훌륭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흥이 다하니 문득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성북동이 뭐길래?"라는 질문. 도대체 성북동이 어떤 곳이길래,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문화원은 사업을 펼치고, 탐방객들은 물어 물어 찾아오는가? 심우장, 이태준 가옥, 간송미술관, 최순우 옛집, 그리고 길목마다 세워 둔 문화예술인들의 표지석들……. 성북동의 이 많은 근대문화유산과 장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전하는 말은 무엇인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개별 장소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친다면 그 장소들이 가진 의미나 가치는 반감되고 만다. 그렇다면 성북동의 구슬 같은 장소들을 어떻게 한줄에 꿰어 보여줄 수 있을까?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2 2018-02-14 오전 8:55:52

"채동선은 나라를 빼앗긴 작곡가의 임무가 서양의 음률을 빌려 새 노래를 작곡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식민 지배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우리의 노래들을 찾아 거두어 보전하는 일 또한 음악하는 사람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다.



작곡가 채동선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북동발 신문화운동

'신문화운동(新文化運動)'이라는 단어가 물음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것이다. 신문화운동은 한말과 일제강점기 거세게 밀어닥친 근대 서구 문명에 대한 우리 문화인들의 대응방식이었다. 외래 문명을 어떻게 수용하고 소화할 것인가? 그리하여 어떻게 열강들에 종속되지 않고 새로운 문화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낼 것인가? 이 같은 어려운 숙제를 짊어진 이 땅의 문화인들은 서구나 일본의 것을 모방해서만이 아닌 그렇다고 전통을 답습해서만도 아닌 이 모두를 포용하고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렇게 일군 문화야말로 다가올 독립된 근대 국가의 국민들을 결속시킬 정신적, 감성적 바탕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었다. 독립 국가의 처지에서도 난감한 이 과제를 한국의 문화인들은 일제강점기 지극히 부자유스러운 상황 속에서 떠맡아야 했다. 성북동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문화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던 일급 문화인들의 다수가 성북동에 거주했었기 때문이다.

민족 독립의 이유를 인류 평화라는 당위 속에 분명히 밝히고, 우리 전통 속 '님'을 새로운 시 양식 속으로 끌어와 되살린 만해 한용운. 옛 물건들의 품격과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준 간송 전형필과 혜곡 최순우. 뛰어난 단편소설들로 한국 문학의 수준을 높이고, 『문장』이란 잡지를 통해 동료 문인들에게 발표할 지면을 열어준 상허 이태준. 그와 함께했던 김용준, 박태원, 조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3 2018-02-14 오전 8:55:52

훈, 김환기. 실로 우리 문화사의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1930~40년대 성북동에 머물며 힘겹게 우리 문화의 새길을 개척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성북동은 근대 신문화운동의 거점이라 할 만했다. 이들의 자취는 아직도 성북동 안에 선명하다.



채동선의 음악 활동

음악가 채동선(1901~1953)은 이와 같은 성북동발 신문화운동의 흐름 가운데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독일로 건너가 음악을 배운 채동선은 1929년 귀국, 아내 이소란과 결혼 후 1931년 성북동에 집을 마련해 들어왔다. 그는 성북동 183-17번지의 널찍한 대지를 사들여 2층 양옥 한 채를 손수 설계해 지었다. 2층의 방은 그가 작곡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방으로 여기에서 그는 작곡에 전념했다. 정지용과 김동명의 시를 좋아했던 그는 그들의 시를 가사로 빌려와 많은 가곡을 작곡했다. '고향'·'내 마음은'·'바다' 같은 곡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음악가로서 위대한 점은 작곡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채동선은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민요를 채집, 채보(採譜)한 음악가였는데 이로써 우리 음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오늘날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때 불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바로 채동선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 그는 나라를 빼앗긴 작곡가의 임무가 서양의 음률을 빌려 새 노래를 작곡하는 것에만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식민 지배라는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가는 우리의 노래들을 찾아 거두어 보전하는 일 또한 음악하는 사람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믿었다. 그는 새로운 음악의 씨를 민족 음악이라는 든든한 토양에 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외래 문화의 토양에서만 자란 예술은 그 뿌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말라죽기 쉬운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명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당시 많은 음악인들이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순응하여 친일의 길에 들어설 때에도 그 아수라장과 거리를 두고 예술가적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그의 음악적 성취는 만해와 상허가 시와 소설로 우리의 말글과 정서를, 간송이 보화각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수화가 그림으로 우리의 색과 형태를 지키거나 재창조했던 것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채동선의 흔적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 뚜렷하게 성북동 안에 남아 있다. 성북문화원 뒤편 지붕 낮은 골목들 사이 낡디 낡은 2층 양옥집이 바로 그것이다.

'평범한 사람의 저항'

지난 6월 17일 저녁, 그의 성북동과 집과 가까운 성북천 분수마루 무대에서는 채동선 탄생 117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 "성북동, 시민과 시인의 노래"가 열렸다. 먼저 소프라노 염희숙, 테너 최종익이 그의 가곡을 부르고 바이올리니스트 최명아가 기악곡을 연주했다. 이어서 밴드 프라이즈가 현대적인 느낌으로 그의 가곡을 편곡해 연주하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무대를 꾸몄다. 마지막 순서로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4 2018-02-14 오전 8:55:54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 공연
'성북동, 시민과 시인의 노래'
1 소프라노 염희숙, 테너 최종익의 가곡 공연
2 채동선의 기악곡을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최명아
3 극단 더늠의 신작 뮤지컬 〈183의 17〉 공연

극단 더늠이 신작 뮤지컬 〈183의 17〉을 선보이며 전체 공연이 끝났다. 다음 글은 공연 팸플릿 속에 담긴 이번 뮤지컬의 기획의도이다.

> 채동선은 일제강점기 '평범한 사람의 저항하는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다. 어쩌면 그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태어났고 살고 있는 땅에서의 불합리와 민중이 느끼는 아이러니함을 함께 소통하며 당대 지식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역경의 세월에서 누군가는 투사처럼 강하게 저항을 하였고 누군가는 시대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했다면 채동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저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5 2018-02-14 오전 8:55:59


4


5

4 성북동 채동선의 집. 이층집이 흔하지 않던 1930년대의 성북동에서 채동선의 이층방은 멀리서도 잘 보였을 것이다.
5 성북동 채동선 집의 담장 무늬. 잘 보면 오선지를 닮았다. 작곡가가 지은 집의 담장답다.

30분여의 짧은 뮤지컬이었지만 '평범한 사람의 저항'이란 말이 가슴을 두드렸다. '어? 한 발 더 깊이 들어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뮤지컬은 채동선이 이룩한 음악적 성취의 핵심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1930~40년대 성북동발 신문화운동의 본질을 잘 짚어내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문화운동을 한 시대의 예술적 경향으로만 보지 않고 일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과 독립의지, 야만으로 치닫는 체제에 대한 고발과 극복의지가 이 문화운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잘 파고든 극이었다. 신문화운동의 알맹이가 예술을 통한 저항에 있음을 뮤지컬은 잘 보여 주었다. 이럴 때 우리 책상 앞에 틀여박혀 지내는 연구자들은 현장의 예술가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끼는 것이다. 예술가의 눈으로만 분간할 수 있는 사물의 핵심 같은 것이 있음을 믿게 된다. 때문에 그날 뮤지컬이 끝나고 내가 보낸 박수는 바로 옆 시민들의 갈채와는 그 의미가 달랐을 것이다. 나의 박수 소리에는 이 뮤지컬을 무대에 올린 예술가에 대한 한없는 존경이 담겨 있었음을 고백한다.

성북동발 신문화운동의 계승

채동선의 예에서 보듯이 성북동발 신문화운동은 아직 그 전모가 다 알려지지 않았다. 커다란 광맥과도 같이 수많은 자료들이 아직 묻혀 있거나 연구자의 손길과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접근하는 사람의 시각이나 몸담은 분야에 따라 앞으로 그 의미는 다채롭게 해석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료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일. 이는 근대 신문화운동의 성과를 다시 한 번 같은 장소에서 이어나가는 일이면서, 덧붙여 성북에서 향토사라는 과목으로 밥벌이하며 살아가는 연구자들의 보람이 되기도 한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6 2018-02-14 오전 8:55:59

2017년 성북문화원이 만난 역사·인물 이야기
창작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아나키스트의 아내

글 박수진(성북문화원 운영과장)
사진 우당기념관 / 극단 더늠 제공

우당 이회영(1867~1932). 이제 많이 알려진 이름이다. 국권을 잃자 6형제가 전 재산을 처분해 서간도로 간 것은 이제 꽤 유명한 일화이다. 그 6형제 가운데 막내인 이시영만이 해방 때까지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이 된 것도 유명하다. 하지만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우당 이회영 선생

이은숙(1889~1979)은 낯선 이름이다. 그는 이회영의 부인이었다. 이회영은 부인과 사별하고 이은숙과 재혼했다. 당시 이회영은 41살, 이은숙은 19살이었다. 22살의 나이차이. 당시로도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해동갑족(海東甲族)으로 불리는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이니 고생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 2년 만에 그 명문가의 집안은 전 재산을 정리하여 기후도, 언어도 낯선 땅으로 이주했다. 고생은 그때부터였다. 마적의 총에 맞기도 하고, 가난에 쪼들리다 자식을 잃기도 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도 못했다. 그래도 이은숙은 좌절하지 않았다. 남편의 독립운동을 도우려, 홀로 조선으로 들어와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돈을 벌어 남편에게 보냈다. 막내 규동은 홀로 낳아 키웠다.

돌아온 것은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다. 소식을 듣고 그녀는 '미친 사람 같이 낭떠러지 구렁텅이에 빠져가며 간신히 몸을 이끌' 정도의 정신이었다. 이회영의 죽음은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무엇을 숨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7 2018-02-14 오전 8:55:59



우당이 북경에서 김당하, 김성숙 등과 함께 찍은 사진



1920년 우당 가족이 유하현(柳河縣)에서 찍은 사진



우당6형제 망명직전 회의 장면 상상화



우당 이회영 흉상

기려 하였는지 일제는 그의 시신을 서둘러 화장했다. 이은숙이 다시 만난 남편은 화장된 한 줌의 유골이었다.

불행은 남편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 첫째 아들 규창이 아버지를 밀고한 사람을 포함하여 독립운동 진영에서 배신자들을 처단하는 것에 참여했으며 엄순봉과 함께 이용노를 암살하고 체포된 것이다. 남편을 옥에서 잃은 그녀에게 아들의 수감 소식은 또 하나의 불행이었다. 결국 규창은 10년 가까운 수감생활을 견디고 해방과 함께 석방되지만, 그 사이 이은숙이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다.

불행은 이은숙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회영을 밀고한 것은 친형 이석영의 아들 이규서로 밝혀졌다. 이규서가 밀고자라고 해서 그가 친일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노선 차이를 인정할 수 없어 삼촌을 밀고했을 가능성, 혹은 다른 밀정에게 속았을 가능성도 언급된다. 아무튼 조카는 삼촌을 밀고했다. 그리고 이회영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들이 동생을 밀고하고, 조카가 아들을 죽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8 2018-02-14 오전 8:56:00




〈아나키스트의 아내〉 공연 장면

이는 참혹한 꼴을 목격한 이석영은 결국 곡기를 끊고 자살한다. 한때 조선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의 불행한 최후였다.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는 이 가족사를 조망한다. 이회영이라는 거목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큰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회영이 순국한 1932년 이후로 이은숙은 47년을 더 살아가야 했다. 자식의 옥바라지를 하고, 한국전쟁을 겪었다. 그런 그녀가 죽어 남편을 만났을 때 서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런 상상에서 극은 시작한다.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신념은 그 자체로 옳고 가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켜나가기는 힘들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뒤를 지켜주었던 가족들도 이제는 기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나키스트의 아내〉의 극본을 쓴 차지성 연출은 '이 뮤지컬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위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신념'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던진 한 집안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학로 알과핵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79 2018-02-14 오전 8:56:03



춘사 나운규 서거 80주기 영화제 1일차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성북구의 거리 이름 중 길이 아닌 고개로 불리는 유일한 도로, 아리랑고개. 우리 민족의 좌절과 시련, 극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에서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을 촬영하여 1926년 단성사에 올렸다.

독립지사이자 선구적인 영화인으로 짧고 빛나는 생애를 살다간 나운규. 성북문화원에서는 춘사 나운규 서거 80주기를 기념하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10월 13일~14일 이틀 동안 "아리랑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영화제는 강연, 영화 상영, 시네토크, 기념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운규를 비롯한 성북 지역 독립지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고자 했다.

오직 영화만을 위해 살았다던 나운규의 대표작 〈아리랑〉을 선두로 하여 한국 독립운동 영화까지 아울렀던 영화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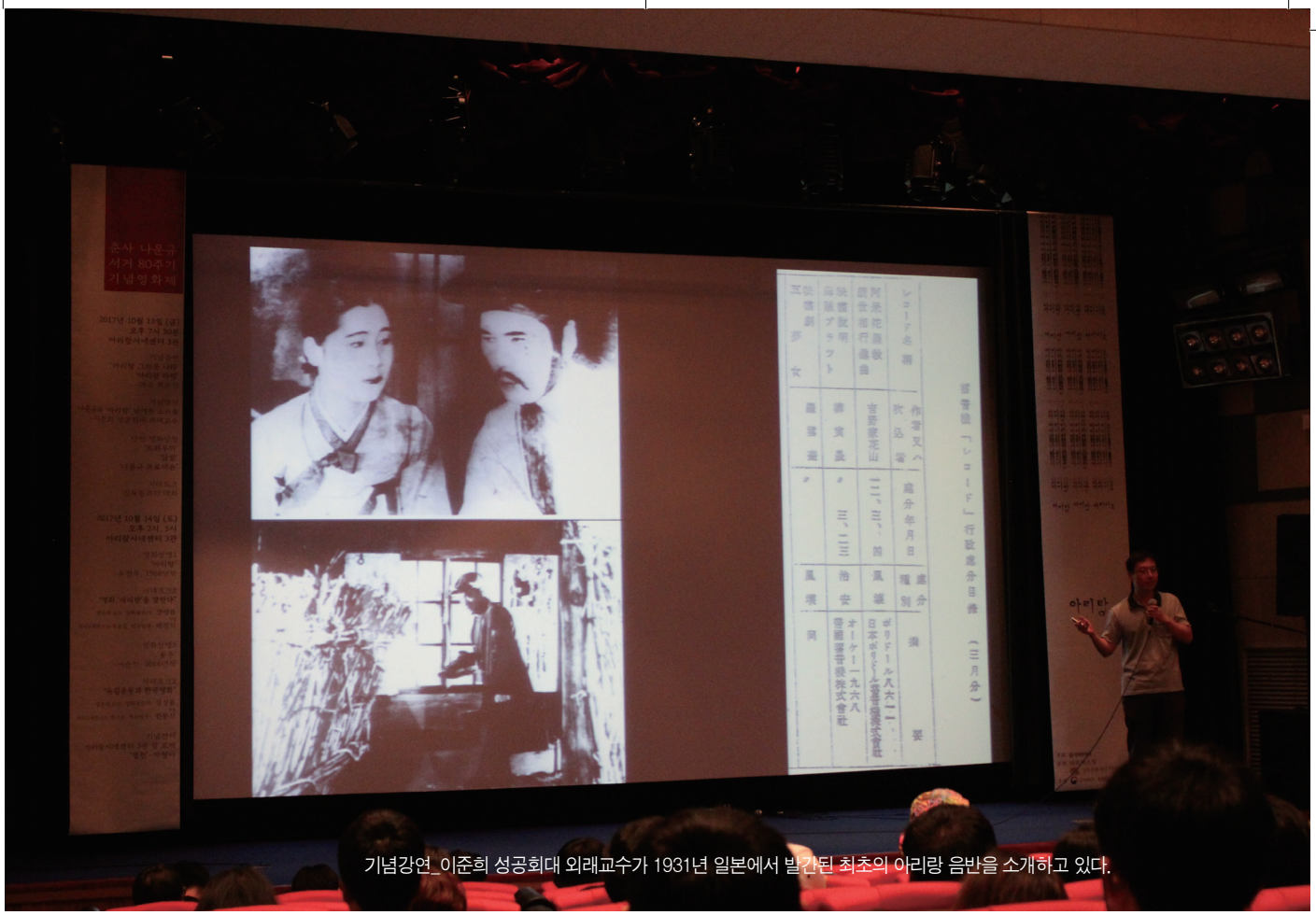


기념공연_1930년대 만요를 재현하는 가수 최은진이 "아리랑 그리운 나라"를 들려주고 있다.



기념강연_"나운규와 〈아리랑〉, 남겨진 소리들"
이준희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강연을 통해 나운규의 목소리와 영화음악을 들려주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82 2018-02-14 오전 8:56:12



기념강연_이준희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1931년 일본에서 발간된 최초의 아리랑 음반을 소개하고 있다.



단편영화 상영_성북의 독립지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트라우마〉, 〈달밤〉, 〈나운규프로덕숀〉을 상영하고 '감독들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83 2018-02-14 오전 8:5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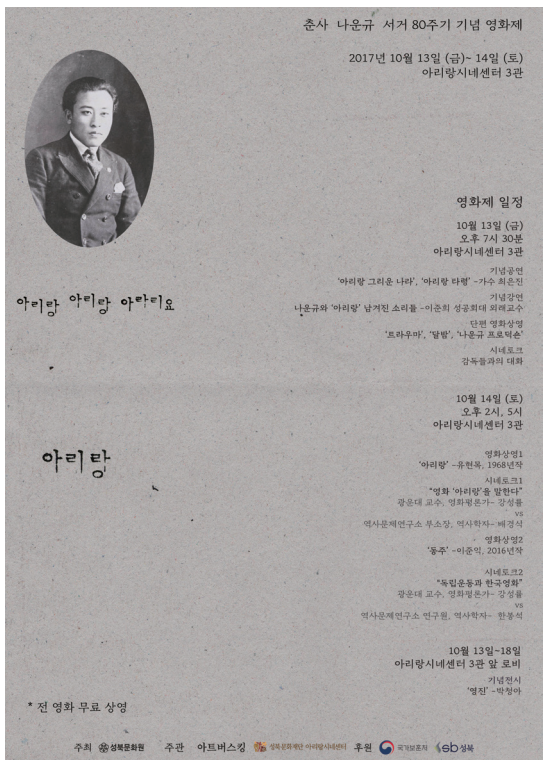


기념전시_"영진"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관 곳곳에
〈아리랑〉의 주인공 '영진'을 주제로 한 박청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기념전시"영진"_나운규의 〈아리랑〉 시나리오를 통해 영화의 장면을 평면에 재현한 작품들이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84 2018-02-14 오전 8:56:21



춘사 나운규 서거 80주기 영화제 2일차

아리랑 영화제 시네토크

역사&영화

"아리랑 영화제" 2일차에는 독립지사이자 영화예술인이었던 나운규를 기리는 자리답게 역사학자와 영화평론가의 시네토크를 진행했다.

역사&영화! 영화&역사! 나운규의 〈아리랑〉, 한국의 독립영화를 주제로 역사학자 배경식과 한봉석, 영화평론가 강성률의 다르고도 같은 시선. 묻혀두기엔 아까운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보았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85 2018-02-14 오전 8:56:24



유현목 감독의 〈아리랑〉 상영 후 강성률 영화평론가(오른쪽)와 배경식 역사학자(왼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리랑 영화제 시네토크 I

영화 〈아리랑〉을 말하다

현재 한국영화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시작점에는 '한국영화의 개척자' 나운규와 그의 작품 〈아리랑〉이 있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울분을 영화예술로 승화한 〈아리랑〉은 한국영화의 효시로 인정받고 있고, 1926년의 영화가 2000년대까지 리메이크될 정도로 그 존재감이 크다. 그러나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서 유현목 감독이 리메이크한 〈아리랑〉을 상영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아리랑〉을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시네토크를 준비했다.

강성률(영화평론가, 광운대학교 교수)
배경식(역사학자,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나운규 〈아리랑〉의 한 장면



강성률_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강성률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나운규의 〈아리랑〉을 리메이크한 유현목 감독의 〈아리랑〉입니다. 원작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많지만, 역사학자 배경식 선생님과 함께 두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영화 어떠셨나요?

배경식_ 반갑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배경식입니다. 먼저 유현목 감독의 〈아리랑〉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926년에 만든 나운규의 〈아리랑〉은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서 1940년대 이후 태어난 분들은 실제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리랑〉은 한국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영화 1위로 꼽힙니다. 그다음 많이 꼽히는 것이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입니다. 유현목 감독은 60년대 이후 한국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감독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컸는데,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나운규가 〈아리랑〉을 만든 1926년은 매우 심각한 시기였어요. 1926년 4월 순종이 죽고 6월에는 6·10만세운동이 실패하면서 한국인들은 민족적 비극에 휩싸였습니다. 8월에는 윤심덕이 부른 '사의 찬미'가 '윤심덕과 애인의 동반자살'이라는 사건과 맞물리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아리랑〉이 개봉됩니다. 나운규가 알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날 조선총독부 신청사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와 부자들은 총독부 신청사 낙성식에 갔고, 빈민들은 이 영화를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리얼리티는 바로 그런 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1926년의 역사적 비극이 아니었으면 〈아리랑〉은 그렇게 큰 울림을 주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 유현목 감독이 〈아리랑〉을 리메이크한 1968년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북한에서 김신조 일당이 내려온 1·21사태가 일어났고, 국민교육헌장과 예비군이 만들어졌고,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통해 독재로 가는 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88 2018-02-14 오전 8:56:28

을 만들어 한국 반공주의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때는 민족의 독립보다 민주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서 학생 시위가 많이 일어나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러니 1968년 〈아리랑〉을 본 사람들에게는 울림도 없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았던 영화였을 겁니다.

강성률_ 말씀하신대로 나운규의 〈아리랑〉 필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영화 필름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한국영상자료원이 노력 끝에 일본 · 중국 등지에서 몇 편의 영화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가장 앞선 것이 1934년 것이에요. 나운규의 〈아리랑〉은 그 이전인 1926년 영화라 아무래도 실존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필름이 산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지방에서는 〈아리랑〉이 상영되었고 유현목 감독은 실제로 어릴 때 봤다고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로는 봤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리랑〉_유현목 감독, 1968

유현목의 〈아리랑〉과 나운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현목의 〈아리랑〉에는 나운규의 〈아리랑〉뿐만 아니라 나운규가 주연한 영화 〈임자 없는 나룻배〉의 모티브도 들어있습니다. 철교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자가 사람을 죽이고 철교를 폭파하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아리랑〉과 〈임자 없는 나룻배〉 두 편 모두 일제강점기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유현목의 〈아리랑〉에는 나운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연기자가 나옵니다. 바로 박 교장 역할을 맡은 윤봉춘입니다. 윤봉춘과 나운규는 모두 회령 출신으로 친한 친구였고 영화계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윤봉춘은 나운규가 일탈을 할 때 옆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어른으로서 큰 역할을 했고, 여담이지만 얼마 전 돌아가신 배우 윤소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아무튼 유현목은 이 윤봉춘을 통해 나운규와의 관계를 영화 속에 담아내려 했다고 봅니다.

그럼 나운규의 〈아리랑〉에 대해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운규의 〈아리랑〉이 공개된 1926년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나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89 2018-02-14 오전 8:56:28

배경식_ 1926년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빼앗고 난 뒤 일본인들의 경제 · 생활 · 문화는 청계천 남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926년 조선총독부가 세워지면서 광화문이 헐리고, 청계천이라는 민족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일본인의 경제권 안으로 넘어간 거죠. 서울 사람 네다섯 중 한 명이 일본인이고, 경제적 부와 좋은 건물이 대부분 그들 차지였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는 일상에서 오는 좌절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터뜨릴 수 없는 시점이었죠. 여기에 순종의 사망, 6 · 10만세운동의 실패, 조선총독부 신청사 완공 등 비극적 상황에서 '사의 찬미'라는 슬픈 노래도 인기를 끌었죠. 그 무렵 영화라 하면 서양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 영화라 해도 '장화홍련전', '심청전' 같은 고전이나 일본소설을 영화화한 것들뿐이었죠. 한국적 색채를 가진 한국인의 심성을 다룬 작품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운규가 민족적 정서를 담은 영화를 만들었으니 당대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했었던 거죠.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강성률_ 필름은 없지만 녹음해 놓은 것은 남아있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926년 당시는 조선인들의 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없던 상황이죠. 그때 나운규가 시나리오를 쓰고 주연과 감독을 한 〈아리랑〉이 나와서 크게 흥행합니다. 이 영화로 인해 한국영화에 대한 시선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당시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전에는 자본이 없어서 영화를 만들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돈 있는 갑부들이 영화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운규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스타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죠. 다른 한편으로 당시 지식인들이 영화가 시민을 계몽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영화의 오락물로써의 잠재력도 발견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룬 영화가 바로 나운규의 〈아리랑〉이죠.

이번에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대체 나운규의 〈아리랑〉에 담겨진 무엇이 민족의 분노를 폭발하게 끔 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경식_ 나운규의 〈아리랑〉이 만들어진 직후, 한 영화인이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의열단이 서울 한 귀퉁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설렘을 느꼈다'라고요. 왜일까요? 유현목의 〈아리랑〉은 일본 순사를 낫으로 찍고, 건물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있지만 나운규의 〈아리랑〉에 그런 자극적인 장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운규의 〈아리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에 주인공이 일본 순사를 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연기한 사람의 회고록을 보면, 동네 청년 여러 명을 난타하면서 그 중 한 명을 일본 순사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미친 사람으로 행세한 것도 마찬가지였죠. 당시 극심한 검열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운규의 〈아리랑〉에는 당대 현실을 비켜가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를 보는 사람 모두 알았던 거죠.

또한 1920년대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서구문화가 급속히 번져갔던 시기입니다. 소설가 이태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0 2018-02-14 오전 8:56:28

이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 날 지각을 했는데, 그 전날 밤새 영화를 보다 깜빡 졸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화가 젊은층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이 서구영화였기 때문에 서구에 대한 동경이나 흠모는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상황에서의 민족의식 각성 같은 것은 없었죠. 그런 점에서 보면 나운규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3·1운동 세대, 지금으로 말하자면 87년도 민주화세대 내지 지금의 촛불세대라고 할까요. 그렇기에 민족의식도 상당했죠. 그러니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 속에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대인들은 나운규의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감했고, 〈아리랑〉이 한국영화의 전설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명동학교 시절 나운규

강성률_ 나운규의 〈아리랑〉과 당시의 분위기가 어찌 보면 잘 만났다고 할 수 있겠군요.

이번에는 영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운규 〈아리랑〉의 등장인물로는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 정신병이 들어 시골에 내려온 청년 영진과 동생 영희, 친일 악덕 지주 천가와 그의 앞잡이인 오기호, 그리고 영진의 친구인 현구 등이 있습니다. 주인공 영진은 미쳐버린 상태입니다. 친구 현구는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영진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사이 현구와 영희 간에 사랑이 싹트죠. 그런데 마을잔치에서 오기호가 영희를 범하려하자 영진이 낫으로 그를 찍어버립니다. 그 순간 정신을 되찾게 된 영진은 오기호를 죽인 죄로 끌려가면서도 '나는 이 삼천리에 태어나 미쳤다!'고 외치고, 이 때 '아리랑' 노래가 흘러나오며 끝을 맺습니다.

나운규는 왜 영진을 미친 사람으로 설정했을까요? 당시 작가이자 배우로 활동한 최승일의 말입니다. "〈아리랑〉을 본 조선인들은 영진이 왜 미쳤는지 안다." 영진은 3·1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잔혹한 폭력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선인들은 다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거죠. 당시에는 취체라고 하는 검열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사전 검열, 영화 상영시 경찰 배치 등, 검열이 삼엄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려면 두뇌 회전이 빨라야 했죠. 그래서 심지어 나운규는 감독도 일본인 이름을 빌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을 보고 조선인들은 폭발한 거죠. 시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1 2018-02-14 오전 8:56:29

이자 문학비평가인 임화는 '일제강점기 조선 최고의 영화는 〈아리랑〉이다. 처음으로 조선인의 생각과 사상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우리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화는 웬만하면 남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보통 일제강점기 최고의 영화로 나운규의 〈아리랑〉을, 두 번째는 〈임자 없는 나룻배〉를 듭니다. 그런데 두 영화의 필름이 남아있지 않으니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을 1위로 꼽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현목의 〈아리랑〉을 보고 엄청 실망하셨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바처럼 시대와 안 맞는다는 건데, 그 시대의 긴장과 영화 〈아리랑〉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배경식_ 나운규의 〈아리랑〉은 무성영화입니다. 무성영화는 화면만 나오고 음향이나 대사가 없는 대신 변사가 있었죠. 그래서 무성영화의 전성기에는 변사가 배우보다 급여도 더 높았고, 인기도 최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성영화는 표현의 한계가 있었겠죠. 1930년대 중반부터 유성영화가 등장했는데, 그러다보니 나운규의 〈아리랑〉을 리메이크한 작품들은 원작의 느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에서는 화면만으로 민족적 정서를 표현했는데 유성영화가 되면서 대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성 요소나 표현 기법도 다르죠.

나운규는 당시 보기 드문 몽타주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영화 초입, 오기호와 영진의 대립을 개와 고양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막에서 매우 목이 마른 상태인데 물을 던져주는 장면을 영진이 미친 모습과 크로스오버 시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민중심리를 재현하고 감정점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혹독한 검열을 당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런데 유현목의 〈아리랑〉에는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구성이 없습니다. 몽타주 기법으로 유명한 작품이 1925년 소련 감독 에이젠슈타인이 만든 〈전함 포템킨Bronenosets Potemkin, 1925〉입니다. 그런데 1926년 한국에서 몽타주 기법을 썼다는 것은 선구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죠.

강성률_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역사학자 선생님께서 아신다니 놀랍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기법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개와 고양이, 영진과 오기호, 순수한 조선 민중과 친일파 앞잡이. 이것을 몽타주 기법을 통해 표현한 거죠. 일제강점기가 매우 삭막한 시기임에도 당시 신문과 『삼천리』, 『조광』 같은 잡지에서 영화를 끊임없이 다뤘고, 『조선영화』, 『영화조선』 같은 영화 전문잡지도 발간됐어요.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감독들도 많이 등장했고, 그러다보니 좌파 영화인들에 의해서 소련의 몽타주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나운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형식적으로도 매우 우수하죠. 나운규가 〈아리랑〉을 만들고 나서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조선영화는 옛날이야기를 정말 재미없게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재밌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서양영화를 흉내내고 싶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꽤 성공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는 나운규의 삶과 영화에 관해 이야기해볼까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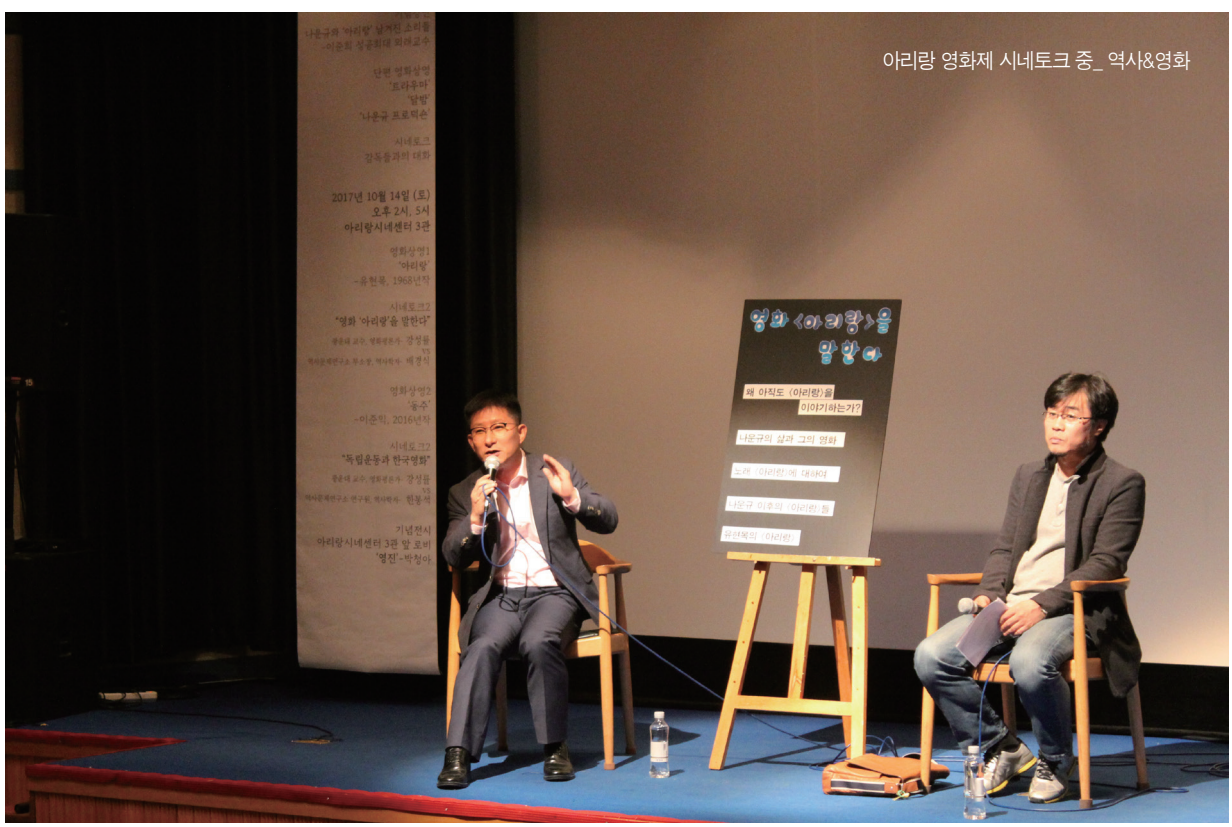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2 2018-02-14 오전 8:56:30

를 하면서 나운규에 대해 독립운동도 하며 의롭게 살았다고 짧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선생님께서는 나운규의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배경식_ 나운규는 영화인임에도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나운규가 1937년에 사망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갖고 있는 선전 효과가 상당했기 때문에 일본은 영화인들을 대거 친일에 동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영화감독들이 친일로 기울었죠.

그런데 나운규의 행적은 조금 독특합니다. 나운규의 아버지는 대한제국 무관 출신으로 고향에서 약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운규 사진을 보면 골격이 튼튼하고 무관의 기질이 보입니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죠. 배우에 어울리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인 박용운에게 독립운동을 지향하는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1운동에 가담했고, 홍범도 군대나 만주의 독립군 단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러시아 혁명군대에 참여한 적도 있고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의 영화기술이나 감각, 혁명적 분위기를 배웠고, 그것이 영화의 밑거름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리랑 영화제 시네토크 중_ 역사&영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3 2018-02-14 오전 8:56:32

강성률_ 그렇군요. 한국영화사에서 회령 출신 인물로 딱 세 명을 꼽습니다. 나운규, 윤봉춘, 전창근.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죠. 특히 나운규는 도판부 사건으로 검거되어 1년 반 정도 감옥살이를 했고, 훈장까지 받았어요. 그 뒤 아주 특이하게 영화계에서 활동을 한 거죠. 제가 본 나운규의 성격은 매우 과감해서 일단 지르고 보자,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요, 힘들어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갔던 사람 같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이 나온 이후 한국영화 붐이 발생해요. 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1년에 열 편 가까이 나옵니다. 나운규도 기존의 제작사에서 독립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나운규프로덕션'을 차리지만, 큰 성공을 거두진 못합니다. 그러니 1930년대에는 돈이 없으니까 일본인 따라서 영화를 만들다가 그것도 실패하죠. 그 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극을 합니다. 그때는 영화보다 연극이 먹고살기 더 편했거든요. 영화는 만드는 기간이 있어야 되고 상영을 해야 돈을 버는데, 연극은 바로 상연할 수 있고, 관람료도 바로 들어오니까요. 당시 나운규는 연극을 하다가 돈이 쌓이면 다시 영화를 만들었는데, 1930년대 중후반에는 폐병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태준의 소설 〈오몽녀〉의 영화화를 시도하다가 1937년, 36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심훈도 일제강점기에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감독이었는데요, 나운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운규를 말할 때 키도 작고 깡패 역할만 하는 소영웅주의에 몰입한 사람이라고 폄하했죠. 나운규는 보통 시나리오를 쓸 때 본인이 주연까지 맡으니까 그에 걸맞게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나운규 영화의 주인공은 광인 · 벙어리 · 방랑자인데 의협심 있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떠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심훈이 말한 소영웅주의 작품은 민족적 정서와 만났을 때는 좋은 영화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졸작이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 나운규의 영화는 〈아리랑〉, 〈들쥐〉를 빼곤 거의 성공을 못했죠. 영화 자체로도 나쁜 평가를 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데뷔작인 〈아리랑〉이 최고작이 되었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럼에도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감독을 뽑으라고 하면 나운규를 빼놓을 수 없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감독도 나운규, 유현목, 임권택입니다. 물론 세 분 다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욱 큰 분들이거든요. 특히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는 나운규의 〈아리랑〉과 비슷합니다. 〈서편제〉는 1990년대 초반 급속한 근대화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버렸다는 죄의식과 후회를 영화에 잘 그려내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와 조우하고, 당시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건드린 영화는 〈아리랑〉과 〈서편제〉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영화의 노래 '아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배경식_ 우리가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성영화일 때는 대사는 변사가 대신하고, 음악은 악단이 직접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나운규의 〈아리랑〉이 상영될 당시에도 단성사 악단들이 무대 뒤에서 음악을 넣고 가수가 현장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영화보다 주제곡이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4 2018-02-14 오전 8:56:32

> “조선 후기 경복궁 재건 때 전국 각지의 인부들이 모여 일하면서 노동요를 불렀는데,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아리랑’이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나운규의 〈아리랑〉이 흥행하면서 영화 주제가인 이 노래가 대표격이 된 거죠.

더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죠? 〈아리랑〉이 그랬습니다.

당시 나운규는 작가 · 배우 · 감독 외에도 한 가지 역할을 더 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노래 ‘아리랑’을 재구성한 ‘신아리랑’을 작사했습니다. 작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성사 악단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요. 영화를 선전할 때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가면 이 영화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래도 가사 때문에 5절이 4절로 축소되는 검열을 당했고, 노래 때문에 영화가 또 검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영화에서는 노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강성률_ 그런데 우리는 노래 ‘아리랑’이라고 하면 이 영화에 사용된 주제가를 생각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니었더군요. 조선 후기 경복궁 재건 때 전국 각지의 인부들이 모여 일하면서 노동요를 불렀는데,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 ‘아리랑’이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런데 나운규의 〈아리랑〉이 흥행하면서 영화 주제가인 이 노래가 대표격이 된 거죠. 지금도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면, 한국말은 잘 못해도 딱 하나, 이 노래 ‘아리랑’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100년도 안 되는 노래가 우리 민족을 대변하는 것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우리를 보면 ‘아리랑’을 얘기하는데,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아리랑’을 부르지 않잖아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죠.

배경식_ 어떻게 보면 나운규가 고전적인 ‘아리랑’을 영화를 통해 근대적인 ‘아리랑’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계속 전승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삼천리』에 나온 나운규 인터뷰 기사를 보면요, 영화 속 ‘아리랑’은 기존에 듣지 못한 새로운 곡인데 어떻게 영감을 얻었는지 물으니, 본인의 고향 회령이 백두산 밀림지대라 엄청난 벌목 사업이 행해졌는데 한겨울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노동할 때 각지의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나운규는 어릴 때부터 그 멜로디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러한 경험과 종합할 수 있는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률_ 어찌보면 영화와 주제가를 엮어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겠네요.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5 2018-02-14 오전 8:56:32

나운규의 〈아리랑〉 이후 이구영 감독이 〈아리랑 2〉를 만들고 나운규 스스로 〈아리랑 3〉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이강천 감독, 1957년 김소동 감독, 1968년 유현목 감독, 1974년 임원식 감독, 2002년에 이두용 감독이 〈아리랑〉을 만들었고요.

이후에도 나운규의 〈아리랑〉을 리메이크한 영화들과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거의 35개 정도의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중 원작을 넘어서거나, 근접했다고 할 만한 영화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영화는 시대와 관객의 욕망을 담아야 하는데 나운규의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관객들이 원하는 조선 민중의 억눌림과 울분을 잘 그렸지만, 이후의 작품들은 해방 이후의 시대적 욕망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합니다.

배경식_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운규의 〈아리랑〉이 갖고 있는 리얼리티를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속편 제작이나 리메이크를 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러려면 당대의 문제를 갖고 나운규의 〈아리랑〉에 담긴 리얼리즘을 재현해야 하는데, 스토리 구성을 재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률_ 저는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리메이크를 하려면 왜 해야 하는지,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만들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두용 감독은 무성영화처럼 만들어 배우들의 연기에 변사의 목소리를 입혔습니다. 다만 과도한 민족주의 때문에 극적 재미가 떨어졌던 게 한계였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유현목의 〈아리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유현목 감독은 한국영화 Best 10을 뽑았을 때 최소한 두 편 정도는 들어가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 영화만 보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선택했던 건 많은 〈아리랑〉 중에서 그나마 유현목 감독의 〈아리랑〉이 낫기 때문이거든요.

배경식_ 유현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목은 평안도 출신으로 과수원을 하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머니는 그를 목사로 만들고 싶어 했었죠. 그러다 한국전쟁 때 아버지와 큰 형이 UN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뒤 사망한 뒤 가족이 월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현목과 그의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단과 종교입니다. 분단은 민족적 비극이라면 종교는 가족의 비극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단과 종교가 한국 현대를 관통하면 결국 반공주의로 현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현목이 활동하던 시절은 유신정권 시대입니다. 그때는 대종상마저도 반공상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한국영화가 국가 이데올로기에 봉사했던 시기입니다. 유현목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그의 개인사적 경험 자체가 영화적인 큰 틀에서 넓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운규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산 거죠. 일제강점기임에도 이념적 스펙트럼은 훨씬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운규의 영화 속에는 큰 흐름이 보이지만, 유현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6 2018-02-14 오전 8:56:32

목의 영화에는 단순한 흐름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강성률_ 그렇습니다. 유현목은 월남을 했고, 기독교인이고, 기본적으로 보수적 정서를 가진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발탄〉은 예외적으로 반공정서가 없고, 실향민의 아픔을 객관적으로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거기다 뛰어난 영화적 기법들이 있고요. 〈순교자〉 역시 반공정서 없이 종교와 결합해서 분단의 문제를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 반공 색채가 짙어집니다. 〈장마〉, 〈불꽃〉, 〈카인의 후예〉처럼 과도하게 표현한 영화들이 있죠. 그의 개인적 환경과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분명 비판할 점이 있죠. 영화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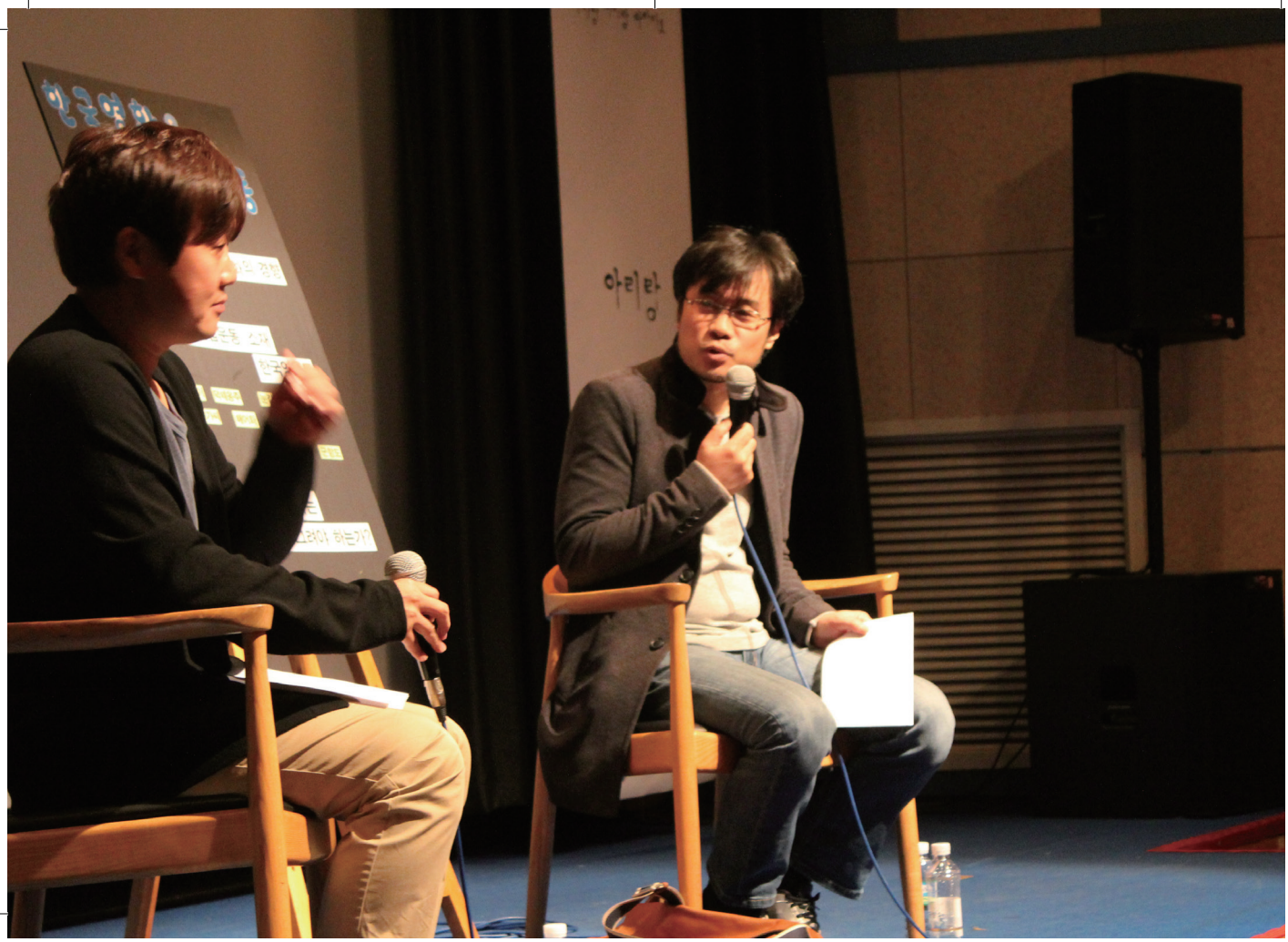
이번에는 관객의 질문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거기 계신 분.

관객_ 북한에서도 나름 나운규와 그의 〈아리랑〉을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북한에 〈아리랑〉 필름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강성률_ '아리랑 필름 찾기 운동'을 할 때 신상옥 감독이 '김정일 필름보관소'에 남한의 영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홍콩을 통해서 구매한 해방 이후의 것들입니다. 해외영화제에 수출하거나 홍콩에 넘어간 것들을 김정일이 모은 거죠. 해방 이전의 영화들은 보통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당시 선전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그게 일제의 영역, 즉 조선 · 일본 · 대만 · 만주 등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렇게 퍼진 것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냥 창고에 처박혀버렸죠. 그것을 한국영상자료원 직원들이 거듭 뒤지고 뒤져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리랑〉이 북한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1940년대 초반 징용간 조선인들을 위해서 〈아리랑〉을 상영했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쪽을 잘 찾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발견되더라도 복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정리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 민문기(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7 2018-02-14 오전 8:56:33



아리랑 영화제 시네토크 II

일제강점기를 다룬 한국영화

#팩션(faction)_ 팩트(fact)+픽션(fiction)의 신조어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새로운 장르.

바야흐로 팩션의 시대이다. 근래 한국영화계에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이 결합된 영화가 쏟아졌다. 이런 영화들은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기억되어야 할, 그러나 지워질 뻔한 역사와 인물을 발굴하는 한편,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 사실과 극적 요소의 충돌 속에서도 계속되는 팩션 영화의 붐. 이준익 감독의 〈동주〉를 함께 보고 '일제강점기를 다룬 한국영화'를 주제로 두 번째 시네토크를 이어갔다.

강성률(영화평론가, 광운대학교 교수)
한봉석(역사학자,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8 2018-02-14 오전 8:56:35



〈동주〉_ 이준익 감독, 루스이소니도스 제작, 2016

강성률_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강성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준익 감독에게 감독님 최고의 작품은 〈동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화를 못 넘을 거라고 했는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을밤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독립운동과 한국영화'라는 주제로 역사학자 한봉석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봉석_ 안녕하세요. 역사문제연구소의 한국현대사 전공자 한봉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성률_ 독립운동과 한국영화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둘 사이의 공통요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한국영화가 독립운동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그려왔는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봉석_ 네,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한국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저는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왜 그런 소재를 다루었는지, 그런 영화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성률_ 아무래도 역사학계에서 보면 역사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학이 간과한 것들이 영화화되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영화사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의 흐름을 시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사에서 독립운동을 다루기 시작한 시점은 광복 직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조국을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영화적 흐름이 194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을 겪고 분단이 되면서 그런 흐름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전쟁 때문에 한국영화의 기반이 초토화되면서 영화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1955년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 1956년 한형모 감독의 〈자유부인〉이 연달아 흥행에 성공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99 2018-02-14 오전 8:56:37

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영화인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모여들면서 극장 산업이 커졌죠. 당시 최고의 번화가는 명동이었는데 이곳에 더는 사무실을 구할 수 없어지자 영화인들이 진고개 너머 충무로에 사무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방이 들어서니 거기서 감독과 배우가 만나 영화에 대해 교류하고, 함께 시나리오도 쓰면서 속칭 '충무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게 1960년대에 들어서자 100편이 넘는 영화가 제작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장르가 발생하죠. 그 중 하나가 독립운동 장르의 영화였는데요. 만주의 군자금을 소재로 한 영화, 독립운동을 한 인물을 다룬 이야기로 시작해 70년대 초반 만주 웨스턴이라는 장르까지 등장했습니다. 만주 웨스턴 장르라면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텐데, 2008년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1971년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을 끊어라〉를 리메이크한 것이기도 하죠.

이후 80년대에는 '독립운동' 장르의 영화를 만드는 흐름이 잠시 사라졌다가 1990년 임권택 감독의 논란의 인물인 김두한을 다룬 〈장군의 아들〉 시리즈가 등장하며 다시 시작됩니다. 2000년대가 되자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제작되어도 '충무로에 일제강점기 귀신이 씌었다'고 할 정도로 흥행에 실패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2015년 〈암살〉, 〈대호〉, 2016년 〈동주〉, 〈덕혜옹주〉, 〈밀정〉, 2017년 〈박열〉, 〈군함도〉까지 만들어지며 독립운동에 관한 영화가 연이어 제작됩니다. 흥행에 성공한 영화도 많아서 역사,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가 한국영화의 키워드로 대두되었죠.

한봉석_ 역사학계에서는 최근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의 르네상스가 매우 반가운 한편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역사학자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볼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는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다룰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확하게 다뤄질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죠. 일제시대는 우리 역사에서는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역사책을 읽으시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멈추고 더 안 보시더라고요. '식모', '공순이'를 다룬 여성사 부분이었습니다. 왜 더 안 보시냐고 물으니 고통스러웠던 시기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보기 힘들어했던 것도 그런 마음이겠죠. 일제강점기라는 상처를 굳이 영화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의 르네상스는 직접 경험했거나 잘 알고 있는 세대가 즐긴다기보다는 현재 젊은 세대가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의 붐이 갑자기 왜 일어났을까요? 1990년대 중반이 되자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를 여러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조선총독부나 황국신민화 정책 등 나쁜 점만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세세한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한 일반 민(民)의 고통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컨대, 영화 〈동주〉에 나온 창씨개명을 일본의 압제적인 정책 중의 하나였다고 알고 있지만, 보통은 그것이 왜 고통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죠. 사실 일제의 창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0 2018-02-14 오전 8:56:37

씨개명은 호주제와 연결돼요. 조선의 부계혈족을 중심으로 한 성(姓) 문화를 없애고 씨족 중심으로 이뤄진 그들의 문화를 이식하려 한 거죠. 이처럼 역사학계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나오자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률_ 다양한 역사 연구가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일제강점기를 다룬 여러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봉석_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대가 자신에게 좀 더 주목하는 경향성도 반영된 것 같아요. 영화 〈동주〉 속 송몽규는 지금까지의 독립운동사를 대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게 와닿은 것은 그런 독립운동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해 계속 고민하고 살펴보는 윤동주였죠.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대부분 일제 타도가 성공해야 관객이 좋아했는데요, 사실 이건 일상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일매일 투쟁을 하며 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영화 〈동주〉는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시



〈동주〉 스틸컷, 송몽규와 윤동주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1 2018-02-14 오전 8:56:38

선을 담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강성률_ 저도 영화 〈동주〉가 일제강점기 사람들의 내면을 그려낸 점에서 좋은 영화라는 평가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이준익 감독이 윤동주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 서사성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니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를 그토록 잔잔하게 그려놓은 것에 감탄했어요. 걱정은 기우였던 거죠. 한편으로는 이준익 감독이 〈동주〉 이전작인 〈사도〉의 영향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두 영화 모두 두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사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면, 〈동주〉는 두 친구의 이야기죠. 플래시백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도 같고 마지막까지 비극적 정서를 가져가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두 영화의 느낌은 너무나 다르죠. 저는 〈동주〉의 잔잔함이 좋아서 최근 본 영화 중 가장 좋은 작품을 물으면 무조건 〈동주〉를 꼽습니다.

또 〈동주〉의 성과 중 하나를 들자면, 영화 속에 시를 내레이션으로 넣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에도 외국에도 이런 영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사 구조를 차치하더라도 형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탁월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영화 속으로 더 들어가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영화 속 두 인물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봉석_ 일단 윤동주와 송몽규, 두 주인공의 이미지가 생각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윤동주도 미남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송몽규의 인물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도 송몽규에게 더 끌리기 쉬운 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윤동주는 아무래도 10대 중반의 사춘기 소년과도 같은 정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갈등도 있었고요. 오히려 듬직한 큰아들 스타일은 송몽규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동주는 올해 탄생 100주년이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꼽히기도 하죠. 그런데 윤동주의 시와 삶, 그리고 영화를 살펴보고나니 한국인들이 윤동주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던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귀뚜라미를 보며 시를 쓰는 이 사람의 예민한 정서와 섬세한 감수성을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또 이런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거든요. 되려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 윤동주의 모습은 오히려 송몽규의 모습과 더 가까웠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윤동주와 실제 윤동주를 비교하고 그 본모습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송몽규라는 인물을 복원하는 역할도 하고.

강성률_ 그렇군요. 저는 선생님과는 약간 다르게 봤습니다. 그동안 받아들인 윤동주의 시와 삶과 같은 것을 영화 〈동주〉에서도 느꼈어요. 윤동주는 굉장히 말이 없고, 자아성찰적이고 섬세한 사람이란 것이죠. 오히려 영화는 윤동주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송몽규를 함께 그려 일제강점기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두 인물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로 묶는데, 그때 등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2 2018-02-14 오전 8:56:38

“송몽규가 창밖에서 일제를 피해 같이 도망가자고 할 때, 윤동주는 “나 지금 못 가”라며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내레이션으로 〈자화상〉이 흘러나오죠. 이 시를 통해 매우 섬세했던 지식인 윤동주와 능동적이었던 지식인 송몽규의 대립된 패턴이 하나로 만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는 시가 〈자화상〉이죠.

송몽규가 창밖에서 일제를 피해 같이 도망가자고 할 때, 윤동주는 “나 지금 못 가”라며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내레이션으로 〈자화상〉이 흘러나오죠. 이 시를 통해 매우 섬세했던 지식인 윤동주와 능동적이었던 지식인 송몽규의 대립된 패턴이 하나로 만나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지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도 인간 내면에 있는 다른 두 개의 자아를 하나로 묶어 그 시대상을 복원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이번에는 일제강점기의 여성을 그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이중 〈덕혜옹주〉는 역사왜곡 논란이 거셌죠. 역사학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봉석_ 우리나라는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1990년대부터 사회를 강타했지만 그 뜻을 이어받은 것은 최근이죠.

영화도 서사를 위해 지금까지 선택한 방식은 일종의 여성 영웅화였습니다. 실제 덕혜옹주는 영화 〈덕혜옹주〉에서처럼 미인도 아니었고, 매우 이른 시기부터 조현병을 앓았습니다. 덕혜옹주를 둘러싼 모든 삶은 다 비극적이었죠. 그런데 영화는 한 인물의 비극에 주목하기보다는 감동을 주기 위해 그 여성을 투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독립운동이라는 큰 흐름에 덕혜옹주를 투영했을 때 그녀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을까, 영화는 왜 여성을 여성 자체로 보려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성으로만 바라볼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상력이 제대로 발휘된 영화는 최근에 개봉한 김현석 감독의 〈아이 캔 스피크〉라고 생각해요. 나문희 배우가 연기한 나옥분 할머니를 통해 위안부 이야기를 보여준 방식도 돋보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군 ‘위안부’」 공식사죄 결의안(H.R.121)’이라는 중대한 소재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위안부에 대해 UN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일본의 잘못을 지적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위안부를 전쟁범죄라 결의하고 제3세계까지 함께 인식하고 움직이게 된 것은 2007년 결의된 H.R.121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역사학계와 영화계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 캔 스피크〉는 이 중요한 사건을 발굴함과 동시에 여성을 투사로 만드는 이전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조관념이 있는 한국사회에서 여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3 2018-02-14 오전 8:56:38



〈아이 캔 스피크〉 김현석 감독, 영화사 시선 · 명필름 제작, 2017

성이 자신의 몸이 파손되고 성노동에 참여했다는 비극을 스스로 발화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섬세하게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옥분 할머니를 통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이 캔 스피크〉는 역사적인 사실과 여성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영화적 미학으로 그려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조정래 감독의 〈귀향〉은 여성을 수동적이고 선택권 없는 순수한 피해자로 표현합니다. 〈덕혜옹주〉는 우리 시각을 왜곡시켰고요. 여성을 여전히 피해자로 잔존시키거나 영웅으로 만들거나 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만든 거죠. 위안부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인데요, 이들 세대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해자로 머물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원하는 새로운 시선이 영화의 흐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이후 나올 영화들이 기대됩니다.

강성률_ 좋은 말씀이십니다. 흔히 영화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식민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지배자는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상징화되고 피지배자는 여성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다보니 강한 남성이 나약한 여성을 억누르는 스토리로 가게 돼요. 영화 〈동주〉 역시 비슷한 패턴입니다. 윤동주는 나약하고 섬세한 여성이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남성적 힘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노골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낸 영화가 〈귀향〉, 〈눈길〉, 〈덕혜옹주〉입니다.

이중 〈귀향〉은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때문에 사회적으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아 이를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보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현재의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받은 과거의 여성과 교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사회이고, 위안부 문제 역시 수치로 여겨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속을 통해 과거의 혼을 불러 대화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그린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덕혜옹주〉의 흥행이 굉장히 기이했습니다. 고종과 덕혜옹주를 우국지사로 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4 2018-02-14 오전 8:56:39

린 것도 모자라 영친왕까지 독립운동을 한 걸로 역사를 왜곡했잖아요. 거기다 역시 식민지 지배자 남성과 피지배자 여성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작용했더군요. 실제 덕혜옹주는 황녀였지만 일본에 끌려갔고, 거기서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고, 탈출도 실패했고, 해방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오랫동안 잊혀졌고, 결국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국에 돌아오죠. 저는 이 여성의 삶이 위안부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거기서 작용한 강한 민족주의가 영화 〈덕혜옹주〉로 나타나고 역사왜곡 논란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여성이 일제에 맞서 싸워 이기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최동훈 감독의 〈암살〉과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대표적이죠. 〈암살〉의 안옥윤은 어머니와 유모의 복수를 위해 친일파인 아버지를 처단하고, 가와구치라는 가상인물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는 실패하지만 친일파 염석진을 처단하며, 암살 성공의 중심에 있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의 경우 식민주의 남성의 폭력성을 내재화한 이모부와 사기꾼 백작이 있는 집에서 벗어나 하층민 여성과 연대하고, 식민주의 폭력이 없는 국제도시 상하이로 탈출하여 자유를 누리게 되죠. 〈덕혜옹주〉, 〈눈길〉, 〈귀향〉, 〈동주〉가 비참하게 끝난다면 〈암살〉과 〈아가씨〉는 이들의 복수와 탈출이 성공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 〈암살〉의 복수와 성공 부분을 놓고 보면 반민특위의 실패 부분도 친일파 염석진의 암살을 통해 실패를 실패라 하지 않고 성공으로 만들며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흥미로웠고 대중적으로도 〈암살〉과 〈아가씨〉가 흥행을 많이 했어요. 시원한 복수를 관객들이 더 좋아하는 거죠.



〈동주〉 상영 후 한봉석 역사학자(왼쪽)와 강성률 영화평론가(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5 2018-02-14 오전 8:56:40

“ 〈덕혜옹주〉, 〈눈길〉, 〈귀향〉, 〈동주〉가 비참하게 끝난다면 〈암살〉과 〈아가씨〉는 이들의 복수와 탈출이 성공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 〈암살〉의 복수와 성공 부분을 놓고 보면 반민특위의 실패 부분도 친일파 염석진의 암살을 통해 실패를 실패라 하지 않고 성공으로 만들며 적당한 타협을 합니다.

한봉석_ 저는 당시 일제시대를 견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은 오늘날 돈으로 환전하면 6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일가족과 함께 서간도로 갑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독립운동에 나서는데 그것이 오늘날 독립운동 영화에 많은 원천이 되죠. 그런데 남자들이 싸우러 나가 있는 동안 집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의 부인, 며느리들뿐이었어요. 독립운동가 이상룡 선생의 손자며느리인 허은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에 남은 여성들은 남편들이 나간 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위기를 느끼면 아이를 품에 안고 짚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간혹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투쟁하기가 힘들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밥도 지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당시 여성들은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여성의 활동을 그릴 때 꼭 남성화된 여성으로 표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볼 때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긴 맥락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역사적 통시성이 반영되었으면 해요.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도 일제강점기 당시 여성에게 강조되었던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한 탓이 큽니다. '수신교과서'에 위안이란 가정 내에서 위로는 시어머니, 옆으론 남편, 아래로는 자식을 잘 위안하는 현모양처의 덕목이라고 나와 있었고, 조선의 신여성들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가정 바깥에 있는 여성들은 모두 나쁜 여성이고 필요에 따라 국가의 위안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위안이라는 것에 대한 통시적인 고민이 반영되었더라면 투쟁만 강조한다거나 일제강점기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충분히 현재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오히려 영화가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독립운동을 다루는 동시에 현재를 다루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성률_ 네, 앞으로 일제강점기를 다루는 영화가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몇몇 영화를 통해 우리가 한 번쯤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민족주의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 〈동주〉를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 역사를 다룬 영화가 나아갈 길도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예술교육사업팀장) · 민문기(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 연구원)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6 2018-02-14 오전 8:56:40

2017년 성북문화원 소식

2017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생활 속 예술을 실천하며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성북문화원 회원들의 도전은 2017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치러지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했고, 그 가운데 여러 회원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전하며, 배움을 통해 그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를 보낸 회원들의 멋진 앞날을 응원합니다.

수상자 사진



문예창작실기 | 강정석(앞줄 맨 왼쪽)



문예창작실기 | 임진희



사군자 | 이발(왼쪽에서 두 번째)



선소리산타령 | 오근창
(대표로 수상, 왼쪽에서 두 번째)



한문서예 | 강정숙(맨 왼쪽)



선소리산타령 | 오근창



한글서예 | 김진순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한문서예 | 박영옥
(왼쪽에서 여섯 번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7 2018-02-14 오전 8:56:45



2017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선소리산타령〉 공연모습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문예창작 실기	강정석	제1회 포항스틸 에세이 가작 〈철의 품안은 따뜻했다〉
	임진희	2017 성북문학제 수필 부문 최우수
사군자	이발	2017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사군자 부문 장려상
선소리 산타령	나명순 외 20명	2017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 장려상
	오근창	제6회 청주아리랑 전국 국악경연대회 명인부 동상
한글서예	김진순	제49회 신사임당의 날 기념 예능대회 한글서예 입선
		2017년 성북구민 독서경진대회 편지글부문 개인 일반부 우수상
한문서예	강정숙	제29회 대한민국서예대전 한글부문 입상
		제7회 세종대왕 한글 전국휘호대회 특선
		제4회 전국휘호대전 한글(일반부)부문 최우수상
		제15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한글 흘림 장려상
		2017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금상
		제28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차하
		제6회 미수문화제 서예대전 특선
	박영옥	2017 구미인동 3·1 문화제 제8회 전국휘호대회 장려상
		제33회 의암제 의암 류인석 전국휘호대회 장원
		제21회 부천휘호대회 대학·일반부 최우수상(한문부문)
		제2회 매헌윤봉길의사 추모 전국 서예 휘호대회 일반부 특선
		제14회 한국추사서예대전 한문부문 우수상
		2017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서예 부문 장려상
		제3회 오산독산성 전국휘호대회 한문 부문 장려상
		제7회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 한문 부문 특선
		제15회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전국휘호대회 일반부 특선
		제28회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차중
		제6회 미수문화제 서예대전 장려상
	최봉환	제6회 미수문화제 서예대전 특선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8 2018-02-14 오전 8:56:45

2017년 성북문화원 소식

2017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2017년 가을 선선한 바람을 따라 성북천에 깃발이 남실거렸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성북천 깃발전은 성북구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구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성북구 문화재의 밤'을 주제로 한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에 총 108점, '성북구 문인들의 밤'을 주제로 한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에 총 94점이 접수되었습니다. 뛰어난 작품들 속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총 140점이 깃발에 담겨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준 꿈나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성북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성북의 문화재와 문인들에 대한 애정을 돈독히 하고 예술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성북구 문화재의 밤



대상
정연경(돈암초 5)
〈탈춤축제〉



최우수상
조원준(안암초 3)
〈아이구, 깜짝이야! 옛돌박물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09 2018-02-14 오전 8:56:46



최우수상
장서아(석계초 6)
〈아름다운 밤을 볼 수 있는 성북구의 풍경〉



우수상
임지현(돈암초 1)
〈성곽에서 바라보는 불꽃놀이 축제〉



우수상
김규리(석계초 4)
〈아름다운 성북문화 축제〉



우수상
김도희(석계초 6)
〈더욱 더 빛나라! 성북문화재〉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0 2018-02-14 오전 8:56:51



가작
정인희(삼선초 1)
〈길상사-소원의 밤〉



가작
안시은(석계초 1)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문화재〉



가작
김지수(석계초 2)
〈아름다운 문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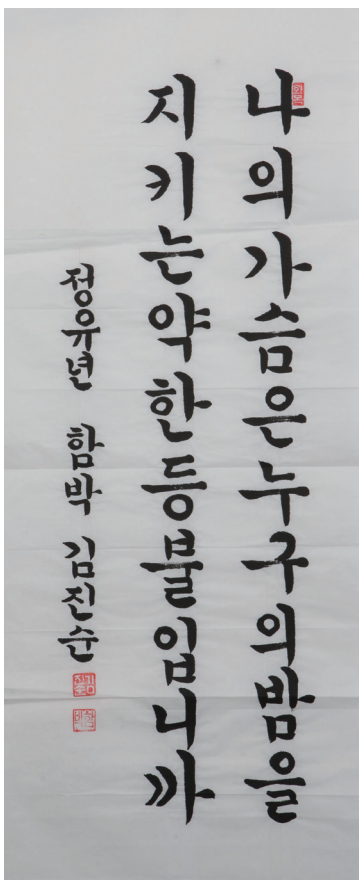
가작
임채정(석계초 2)
〈간직하고 싶은 성북 문화재〉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1 2018-02-14 오전 8:56:56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주제 : 성북구 문인들의 밤

[한글서예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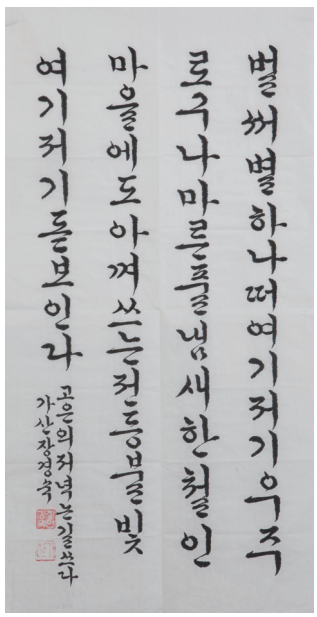


대상
김진순
〈한용운 님의 詩 '알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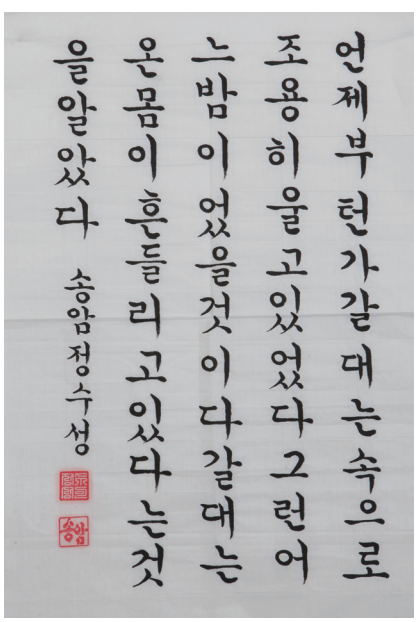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2 2018-02-14 오전 8:5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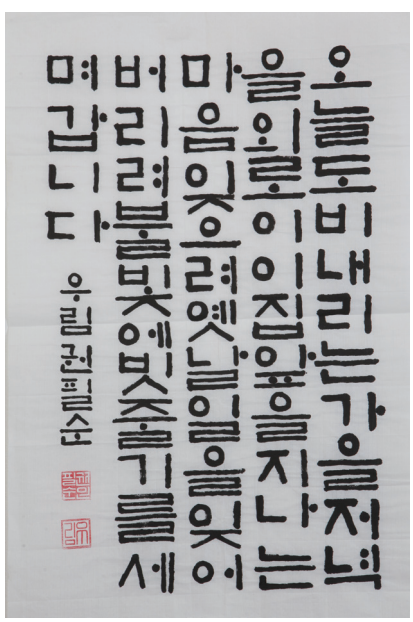
최우수상
홍석희
〈승무〉



최우수상
장경숙
〈고은 님의 저녁 논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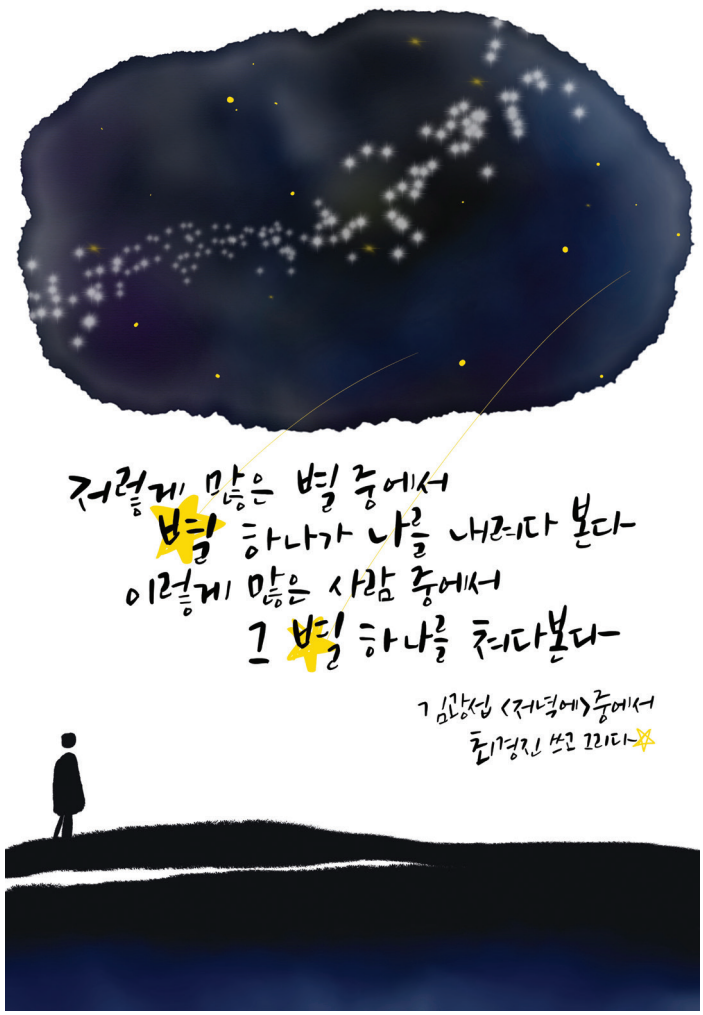
우수상
정수성
〈신경림 선생 갈대〉



우수상
권필순
〈이은상 시 '그집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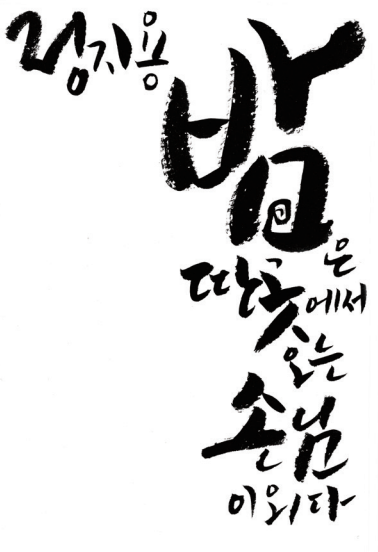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3 2018-02-14 오전 8:57:01

[캘리그라피 부문]



대상
최경진
〈김광섭 '저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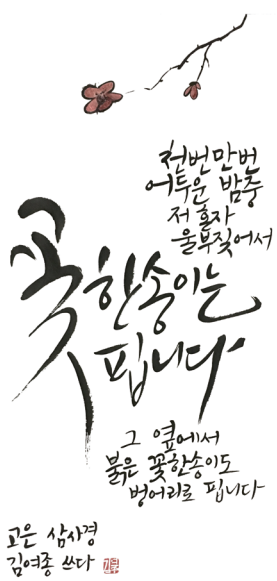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4 2018-02-14 오전 8:5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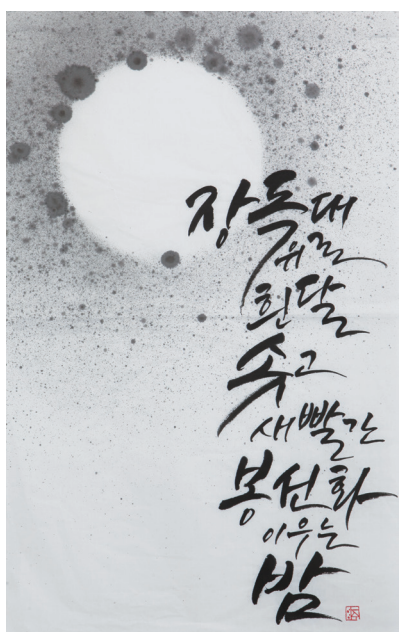
최우수상
손진아
〈정지용의 밤〉



최우수상
조미예
〈이은상의 '성불사의 밤'〉



우수상
김여종
〈고은의 '삼사경'〉



우수상
이영주
〈조지훈의 '호수'〉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5 2018-02-14 오전 8:57:15

사진으로 보는 2017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의 대표 문화공간으로서 2017년에도 지역문화와 구민 문화생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성북문화원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2017년 성북문화원의 활동과 성과를 사진으로 기록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구민 및 문화원 회원 여러분께서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뻐해주시고, 성북문화원이 새롭게 나아갈 길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성인 강좌(31개)

규방공예, 경기민요,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대금·단소, 동화구연가 양성과정, 문예창작실기, 민화, 사군자, 사진기초, 서양의 역사와 문화유산, 선소리산타령, 수묵산수화A, 수묵산수화B, 수채화, 스포츠댄스, 시낭송가 양성과정,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원어민영어회화(고급),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웰빙실용풍수,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장구, 테라피요가, 팝송영어, 한국무용(초·중급), 한국무용(심화), 한글서예, 한문서예A, 한문서예B

어린이 강좌(9개)

어린이 놀이미술A, 어린이 놀이미술B, 어린이 역사교실, 어린이 한자교실, 원어민영어회화(기초), 원어민영어회화(초급), 원어민영어회화(중급), 유아발레 Level1, 유아발레 Level2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6 2018-02-14 오전 8:57:15



유아발레 Level 1/2



어린이 놀이미술 A/B



원어민영어회화(기초/초급/중급/고급)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대금·단소



선소리산타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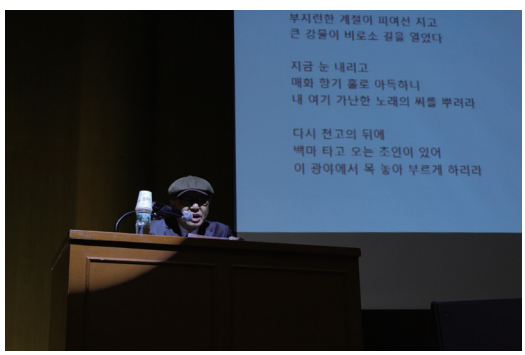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7 2018-02-14 오전 8:57:24

향토문화 계승 및 문화탐방 사업




4·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2017.04.18. 성북구청)





이육사 탄생 113주년 기념 문화제 "청포도가 익어가는 골목"(2017.05.18. 동덕여자대학교)




제24회 선잠제향(2017.05.21. 선잠단지 및 성북구청 일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8 2018-02-14 오전 8:57:31



일반회원 상반기 역사문화탐방(2017.05.25. 경북 안동 일대)



일반회원 하반기 역사문화탐방(2017.10.24. 전북 김제·전주 일대)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성북동, 시민과 시인의 노래"(2017.06.16. 성북천 분수마루 광장)





만해 한용운 선사 73주기 추모다례재(2017.06.29. 성북동 심우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19 2018-02-14 오전 8:57:39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창작 뮤지컬 "심우"
(2017.06.17~29. 성북동 심우장)



성북문화 아카데미(2017.04~11. 성북동 일대)



길위의 메아리학교(2017.06~12. 홍릉수목원, 천리포수목원 외)



서울 속 마을여행 "보문 · 안암동 마을여행"
(2017.04~12. 보문동·안암동 일대)



인문학 특강 "서양의 역사와 문화유산"(2017.01~12. 성북문화원)



성북동 역사 · 문화 · 예술관련 인물 표석설치(2017.03~12. 성북동 일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0 2018-02-14 오전 8:57:45





성북동 주민 아카데미 “성북동에서 만나는 한국의 근현대”(2017.09.05~23. 성북문화원 및 성북동 일대)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음악회 “성북동은 1955 윤이상을 기억한다”(2017.09.17. 우리옛돌박물관)





춘사 나운규 서거 80주기 기념 영화제 “아리랑 영화제”(2017.10.13~14. 아리랑시네센터)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1 2018-02-14 오전 8:57:53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



성북동 문화재 야행(봄) “저 별이 기억하는 밤”
(2017.05.19~20. 성북동 일대)



성북동 문화재 야행(가을) “저 별이 기억하는 밤”
(2017.10.27~28. 성북동 일대)





2017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희喜낙樂”(2017.04~11. 성북동성당, 종암백마요양원 외)





2017 제3회 서울문화원엑스포 “서울 25色! 문화의 어울림”(2017.09.26. 광화문광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2 2018-02-14 오전 8:58:00





2017 성북천 깃발전(2017.10.02~10.31. 성북천 일대)



2017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성북, 예술로 물들다"
(2017.11.02~12.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동작은갤러리)



2017 성북문화가족 어울마당 축제 "성북, 예술로 물들다"
(2017.11.04. 성북구민회관)





창작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2017.11.30~12.10. 알과핵소극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3 2018-02-14 오전 8:58:06

경연대회





2017 서울문화가족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2017.06.14. 중구구민회관)





2017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2017.09.08. 중구구민회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4 2018-02-14 오전 8:58:10

성북문화원 수상내역



2017 지방문화원의 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17.10.11. 서해유스호스텔)



제32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
부문 특별상(2017.12.04.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교류협약



동덕여자대학교(2017.04.18.)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5 2018-02-14 오전 8:58:13



국민대학교(2017.08.2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내러티브인재양성사업단(2017.09.14.)

기타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2017.01~12.)







성북문화원 간판 설치(2017.12.)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6 2018-02-14 오전 8:58:17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경향신문

[서울, 마을을 읽다](5) 성북구 성북동, 발길 닿는 집집마다 '항일의 향수'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입력 : 2017.02.02 21:27:00 | 수정 : 2017.02.03 10:21:56



성북동은 서울 성곽이 마을 전체를 둘러치고 있는 문화유산 가득한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성북동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처마를 맞댄 집들이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듯하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성북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서울 성곽이 마을 전체를 둘러치고 있는 자그마한 동네이지만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예로부터 물 맑고 산세가 아름다워 자연스럽게 문화 예술인들이 성북동에 모여들었다. 만해 한용운, 간송 전형필, 서예가 오세창, 시인 조지훈 등이 성북동에서 시를 쓰고 붓을 들어 창작의 혼을 불살랐다.

1930년대 성북동에 살았다면 이웃은 누구였을까. 일제 말기 민족·사회주의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 30여명이 성북동에 은거하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1930년대 역사의 흔적을 더듬기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렸다.

《경향신문》, 2017.02.02. 기사 발췌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7 2018-02-14 오전 8:58:17

[지역] 4·19혁명 57주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기사입력 2017.04.13 15:51 최종수정 2017.04.13 15:51

성북구,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4·19 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개최... 원로시인 김광규 특별강연, 연극배우 전소현 시 낭독, 토크콘서트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시에 만나 /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는 차가운 방에 앉아 /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략)…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중에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와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가 4.19혁명 57주년 기념 학술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성북구의 4.19기념 학술제는 18일 오후 6시 30분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연극배우 전소현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시 낭독을 시작으로 원로시인이자 한양대 명예교수인 김광규 시인의 4.19에 대한 문학적 회고,4.19혁명과 나'특별강연이 진행된다.

《아시아경제》, 2017.04.13.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2.02	경향신문	[서울, 마을을 읽다] (5) 성북구 성북동, 발길 닿는 집집마다 '향일의 향수'
2	2.08	경향신문	봄 학기 개강…고궁체험·추억앨범 만들기부터 공정여행 기획가 양성까지
3	4.13	아시아경제	4·19혁명 57주년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4	4.13	신아일보	성북, 4·19혁명 학술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개최
5	4.13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18일 4.19혁명 학술제 개최
6	4.18	아시아투데이	동덕여대-성북문화원, 지역사회 교류 위한 MOU 체결
7	4.19	베리타스알파	동덕여대, 성북문화원과 지역사회 교류 협약
8	4.19	한국대학신문	동덕여대, 성북문화원과 교류 협약 체결
9	4.2	중앙일보	[사랑방]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 外
10	5.15	아시아경제	봄 밤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 걸어볼까?
11	5.15	뉴스1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서 즐기는 5월의 밤
12	5.16	아주경제	광주요 조태권 회장의 '성북문화원', 19~20일 야간 개방 '문화축제' 열어
13	5.15	뉴스1	'지붕없는 박물관' 성북동서 즐기는 5월의 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8 2018-02-14 오전 8:58:17

news1 KOREA

사회 > 일반

'지붕없는 박물관' 성북동서 즐기는 5월의 밤

성북구 19~20일 '성북동 야행' 개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05-15 22:46 송고



성북동 야행 포스터(성북구 제공)© News1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19~20일 성북동의 멋과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성북동 야행(夜行)'을 개최한다.

한양도성, 심우장, 성락원, 최순우 옛집,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근현대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재와 문화예술인이 흔적이 남아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축제다.

《뉴스1》, 2017.05.1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4	5.16	아주경제	광주요 조태권 회장의 '성북문화원', 19~20일 야간 개방 '문화축제' 열어
15	5.16	헤럴드경제	정겨운 부자동네, 성북동 야행(夜行) 보러 가요
16	5.16	문화일보	의친王의 정원 '성락원' 10년만에 개방
17	5.16	한국경제	성북동 야경 볼까, 워터파크 갈까 5월 가족나들이 추천 코스
18	5.16	디지털타임즈	성북동 문화 축제, '마을 속 문화재, 성북동 야행' 개최
19	5.16	국민일보	'야행 축제'… 서울의 밤 정취, 색다른 추억
20	5.17	동아일보	'성북동 夜行' 떠나요
21	5.17	아시아경제	5월엔 성북동이다!
22	5.17	헤럴드경제	성북구, '지붕 없는 박물관' 성북동에서 야행 투어
23	5.17	한강타임즈	성북구, 성북동 야행·선잠왕비 퍼레이드·누리마실 등 개최
24	5.17	헤럴드경제	서울 속 조선의 멋 '성북동 야행'
25	5.17	시민일보	성북구 성북동 19~21일간 '성북동 야행' 등 다양한 축제 개최
26	5.17	아시아경제	경의선책거리 축제 등 서울 명품 축제 잇달아
27	5.18	서울신문	성북동 '夜行'…성북구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다
28	5.18	이투데이	[카드뉴스 팡팡] 성북동 야행 밤이 되면 멋이 살아나는 그곳
29	5.18	씨네21	[culture highway] 다시 보는 나의 타마코, 나의 숙희
30	5.19	tbs 교통방송	성북동, 정동 등 역사와 문화를 즐기는 '서울야행'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29 2018-02-14 오전 8:58:17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1	5.19	한겨레	서울의 봄날, 비밀의 방이 열린다
32	5.19	시선뉴스	축제를 한 눈에! 5월 넷째 주(5.19~5.25) 축제 일정 '서울/경기'
33	5.25	내일신문	왕실정원도 근대극장도 밤에 즐겨야 제 맛
34	5.31	한강타임즈	성북구,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 프로그램 개강
35	5.31	신아일보	성북, 마을시민교육센터 프로그램 개강
36	6.1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고택 심우장서 뮤지컬 '심우' 공연
37	6.1	여성신문	만해 한용운 고택 심우장서 뮤지컬 '심우' 공연
38	6.1	아시아투데이	서울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심우' 뮤지컬 공연
39	6.1	아시아뉴스통신	만해 한용운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심우' 고택 심우장에서 공연
40	6.12	시민일보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생 그린 뮤지컬 공연
41	6.12	뉴스1	만해 한용운 입적 73주기 뮤지컬 '심우' 공연
42	6.13	서울신문	성북에서 '뮤지컬 만해'를 만나다
43	6.15	아시아경제	'고향' '향수' 작곡가 채동선 탄생 117주년 행사
44	6.15	헤럴드경제	성북구, '고향'·'향수' 작곡가 채동선 탄생 117주년 행사
45	6.15	뉴스1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성북구, 채동선 탄생 117주년 행사
46	6.15	한강타임즈	성북구, 작곡가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열려
47	6.15	뉴시스	내일 성북구서 '고향'·'향수' 작곡가 채동선 문화행사
48	6.15	시민일보	성북구,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16일 개최

서울 Pn

성북에서 '뮤지컬 만해'를 만나다

입력 : 2017-06-12 23:02 | 수정 : 2017-06-13 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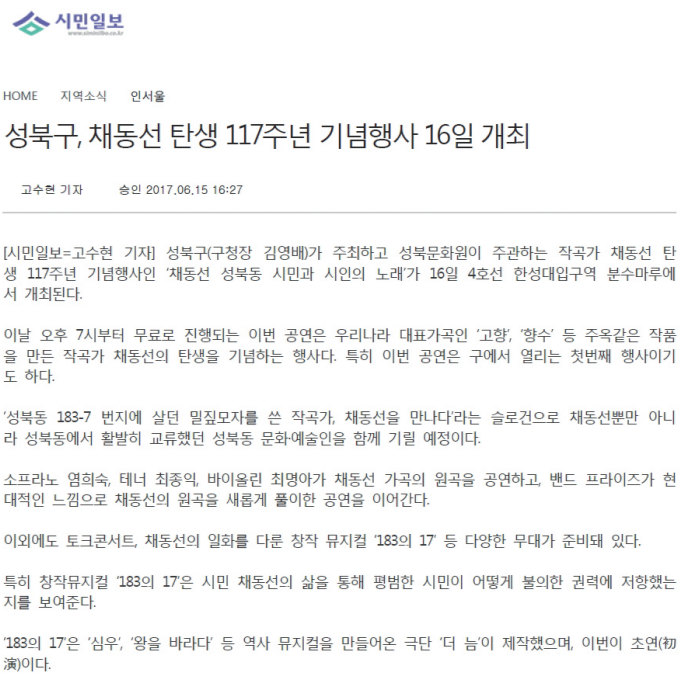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가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73주기를 기념해 뮤지컬 '심우'(尋牛)를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공연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우란 불가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말이다. 한용운 선생이 일제강점기인 1933년 성북동에 집을 짓고 심우장이라고 명명했다.



지난해 6월 서울 성북동에 있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유택인 심우장에서 관객들이 뮤지컬 심우를 보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신문》, 2017.06.12. 기사 발췌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0 2018-02-14 오전 8:58:18



시민일보

HOME 지역소식 인서울

성북구,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 16일 개최

고수현 기자 승인 2017.06.15 16: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이 주관하는 작곡가 채동선 탄생 117주년 기념행사인 '채동선 성북동 시민과 시인의 노래'가 16일 4호선 한성대입구역 분수마루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후 7시부터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 대표가곡인 '고향', '향수' 등 주옥같은 작품을 만든 작곡가 채동선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공연은 구에서 열리는 첫번째 행사이기도 하다.

'성북동 183-7 번지에 살던 밀짚모자를 쓴 작곡가, 채동선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채동선뿐만 아니라 성북동에서 활발히 교류했던 성북동 문화예술인을 함께 기릴 예정이다.

소프라노 염희숙, 테너 최종익, 바이올린 최명아가 채동선 가곡의 원곡을 공연하고, 밴드 프라이즈가 현대적인 느낌으로 채동선의 원곡을 새롭게 풀이한 공연을 이어간다.

이외에도 토크콘서트, 채동선의 일화를 다룬 창작 뮤지컬 '183의 17'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다.

특히 창작뮤지컬 '183의 17'은 시민 채동선의 삶을 통해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는지를 보여준다.

'183의 17'은 '심우', '왕을 바라다' 등 역사 뮤지컬을 만들어온 극단 '더 늠'이 제작했으며, 이번이 초연(初演)이다.

《시민일보》, 2017.06.1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9	6.15	신아일보	성북, '작곡가 채동선을 만나다' 기념행사
50	6.28	BBS NEWS	내일 만해스님 '73주기' 다양한 추모행사 잇따라
51	6.28	정책브리핑	만해 한용운 선생 73주기 추모행사
52	6.28	서울경제	29일 만해 한용운 73주기 추모제
53	6.29	연합뉴스	만해 한용운 73주기 다례재
54	6.29	BBS NEWS	만해스님 73주기…'님' 떠난 날에 추모행사 '풍성'
55	6.3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73주기 추모
56	6.3	헤럴드경제	성북구, 만해 한용운 입적 73주기 추모제 열어
57	6.3	한강타임즈	성북구, 만해 한용운 선생 73주기 추모행사 개최
58	6.3	시민일보	성북구, 만해 한용운 73주기 추모 행사 성료
59	6.3	천지일보	성북구, 만해 한용운… 추모다례재 열려
60	7.13	뉴스1	'젊은 윤이상' 넋 서린 성북동…추모 중심지 급부상
61	8.07	머니투데이	한성대, 광복절 기념 보훈선양학술대회
62	8.07	중앙일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1일 광복절 기념 보훈선양학술대회 연다
63	8.07	서울경제	한성대 제72회 광복절 기념 학술대회 개최
64	8.07	문화일보	'독립운동 새 발견' 학술회의
65	8.07	뉴데일리	[캠퍼스 단신] 중앙대, '2017 하계 ADI' 개최
66	8.07	이데일리	민족운동사학회·한성대 '독립운동 조명' 학술회의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1 2018-02-14 오전 8:58:18

[지역] '만해 한용운 도시' 성북구 독립유공자 발굴도 최고

기사입력 2017.08.14 15:08 최종수정 2017.08.14 15:08

성북구,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결과 8명 선정...지자체 단위서 8명 대거 포상 결정 첫 사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생전에 살았던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독립유공자 발굴에 남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제 72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가 발굴, 포상 신청한 19인 중 8인이 선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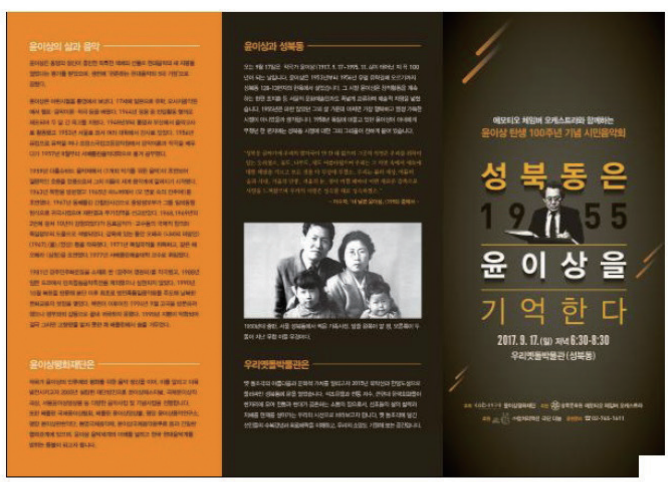
《아시아경제》, 2017.08.14. 기사 발췌

스타데일리뉴스

홈 > 뉴스 > 문화 · 생활 > 문화

에모티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 음악회' 개최

2017년 09월 16일 (토) 09:42:59 천설화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 음악회 자료 (성북문화원 제공)

[스타데일리뉴스=천설화 기자] 성북문화원은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 음악회 음악회 '성북동은 1955년 윤이상을 기억한다'를 윤이상이 태어난 9월 17일(일) 성북동에 위치한 우리옛돌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스타데일리뉴스》, 2017.09.1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67	8.14	아시아경제	'만해 한용운 도시' 성북구 독립유공자 발굴도 최고
68	8.14	뉴스1	'한용운의 도시' 성북구 독립운동가 8명 유공자 포상
69	8.15	한겨레	낮보다 아름다운 밤… 전국 야행 인기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2 2018-02-14 오전 8:58:18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70	9.14	한강타임즈	성북구,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음악회' 개최
71	9.14	아시아경제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음악회 성북동에서 열려
72	9.14	시민일보	성북구, 17일 윤이상 탄생 100주년 시민음악회
73	9.14	뉴스1	'성북동은 윤이상을 기억한다'…17일 탄생 100주년 음악회
74	9.16	스타데일리뉴스	에모티오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 음악회' 개최
75	9.18	아시아경제	탄생 100주년, 성북동에서 펼쳐진 윤이상의 꿈
76	9.18	신아일보	성북, 윤이상 탄생 100주년 시민음악회 개최
77	9.25	불교공뉴스	25色 서울문화의 어울림, 2017 서울문화원 엑스포 개최
78	9.25	뉴시스	서울 문화원엑스포, 26 광화문광장서 열린다
79	9.26	국제뉴스	서울시, 25개區 700여 명 문화가족…'문화 엑스포' 개최
80	10.15	금강일보	한 엄마의 아픔을 그린 독립영화 '트라우마', '춘사 나운규' 서거 80주기 기념 영화제에서 상영
81	10.21	스페셜경제	변성진 사진작가 개인전 '성북동을 거닐다'展 개최
82	10.25	뉴스1	시진핑이 감탄한 성북동…27~28일 '문화재 야행'
83	10.26	아시아경제	성락원 10년만 민간 개방… '2017 성북동 문화재 야행'

news1 KOREA

사회 > 일반

시진핑이 감탄한 성북동...27~28일 '문화재 야행'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7-10-25 21:11 송고



성북동 문화재 야행 포스터(성북구 제공)© News1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방문해 감탄한 한국가구박물관 등이 자리잡은 '지붕없는 박물관'이자 조지훈, 이태준, 박태원, 염상섭, 김광섭 등 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펼친 성북동의 매력을 만끽할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뉴스1》, 2017.10.25. 기사발췌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3 2018-02-14 오전 8:58:18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84	10.26	신아일보	성북동의 매력에 푹 빠져봅시다
85	10.26	시민일보	성북구, 27·28일 성북동 문화재 야행
86	10.27	서울신문	문화재 따라 거니는 성북
87	10.29	국민일보	11월 전국축제엔 실버예술 활짝 피어난다
88	10.3	쿠키뉴스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으로 빚어낸 지역 축제 한마당”
89	11.26	경기일보	경기도내 지역문화원들 한자리에 모이는 〈페스티벌31〉 28~29일 안성맞춤아트홀서 열려
90	11.3	매일일보	극단 더늠, 뮤지컬로 보는 독립 이야기 ‘아나키스트의 아내’ 초연
91	12.07	한겨레	거대한 연극무대 같은 동네
92	12.15	이데일리	“도자기 문화, 요리에 담아 세계로” 조태권 광주요 회장

"도자기 문화, 요리에 담아 세계로" 조태권 광주요 회장

입력시간 | 2017-12-15 04:00



조태권 광주요 회장이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화요 공장 옹기숙성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화요는 옹기 안에서 3개월 이상의 숙성과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다. (사진=광주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나이 칠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도자기(이하 자기)와 술 문화를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14일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만난 조태권(69) 광주요그룹 회장은 “경영인생 30년은 우리 자기를 세계화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2017.12.15. 기사 발췌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4 2018-02-14 오전 8:58:18

2017년 성북문화원 소식

詩作을 시작하다,
"빈티지프랭키" 정규앨범 [Poet of Resistance NO.264] 발매



밴드 "빈티지프랭키" (왼쪽부터) 김효진_기타, 한필수_보컬, 오구구_드럼, 후니후니_베이스

역사와 문화를 노래하는 밴드 빈티지프랭키가 2017년 12월 정규 1집 앨범 'Poet of Resistance NO.264'를 발매했다. 2016년 3월 성북구에 거주하는 음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빈티지프랭키는 성북문화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행사 및 축제를 함께 해왔다.

그동안 이육사, 한용운 등 민족저항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 발표해 온 빈티지프랭키는 이번 앨범에 이육사 시인의 시 열 편을 담았고, 앨범명 'Poet of Resistance NO.264'는 저항시인 이육사의 수인번호 264에서 따왔다. 지난 2년의 결실이 모인 빈티지프랭키의 詩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빈티지프랭키의 시작을 응원한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5 2018-02-14 오전 8:58:18



1 절정 (작곡 박계훈)
2 청포도 (작곡 한필수)
3 광야 (작곡 박계훈)
4 꽃 (작곡 한필수)
5 소년에게 (작곡 오훈정)
6 황혼 (작곡 김효진)
7 호수 (작곡 한필수)
8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작곡 박계훈)
9 강 건너 간 노래 (작곡 오훈정)
10 교목 (작곡 박계훈)

밴드 "빈티지프랭키" 멤버 소개



VOCAL 한필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
- 뮤지컬 〈그림자의 꿈〉 작사/곡
-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음악감독/배우
- 여수 엑스포 롯데관 음악감독
- 연극 〈스물아홉〉 제작/음악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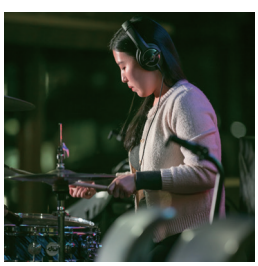
GUITAR 김효진

- 네덜란드 'Prins Claus Conservatory' 졸업
- 한국국제대학교 음악과 외래교수
- 재즈보컬 김주환 'The best gift' 음악감독/기타
- 김국찬과 귀재들 '스윙잉 경성' 음악감독/기타
- 연극 〈살아내기〉 음악감독 외



BASS 후니후니

- 성균관대 중앙 락 밴드 LCDA 1기 BASS
- 뮤지컬 〈피크를 던져라〉 작/연출/배우
- 뮤지컬 〈서로를 연주해 줄 때〉 작/연출
- 제4회 성북진경페스티발 민간 사무국 사무국장
- 제1회 성북동문화재야행 민간 사무국 사무국장 외



DRUM 오구구

- 백석예술대학교(드럼 전공)
- 이태원 지구촌축제, 그레이트 비어 페스티발, 할리바이크 페스티발, 여성 드러머페스티발 출연
- 겸) Fishing Girls 드러머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6 2018-02-14 오전 8:58:21

2017년 성북문화원 소식

제2기 길위의 메아리학교 '숲과 인간'



"제2기 학교 출발!" 정각사 미래탑 앞

길위의 메아리학교는 2016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성북구 삼선동 소재, 주지 정목 스님)가 주최하고 성북문화원, 유나방송이 함께 주관한 청소년 대상 여행 프로그램이다. 1년에 참가학생 20명 정도를 선발하여 평소 가기 힘들었던 국내의 생태보존지역,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현장활동가들과 만나면서 청소년들에게 폭 넓은 생각과 배움을 장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길위의 메아리학교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는 정각사 '미래탑'에 등불을 켜는 불자들의 기도비로 조성되었다. 청소년들을 위하는 정목 스님의 뜻을 아름답게 여기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에 힘입어 길위의메아리학교는 2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열린 제1기 학교에서는 모두 8차례 당일 여행을 다녀왔고,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제2기 학교에서는 1박 2일 여행과 1일 여행을 각각 두 번씩 다녀왔다. 특별히 2017년에는 '숲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정해 평소 가기 쉽지 않았던 전국의 유명 수목원 세 곳을 방문하여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계획 단계에서 태안 천리포수목원 측의 도움이 컸다. 천리포수목원 구길본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7 2018-02-14 오전 8:58:21

첫 만남(6월 17일)



"흩어졌다 모였다"
노디 김용택 선생님과 함께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가을 숲에 가면(10월 28~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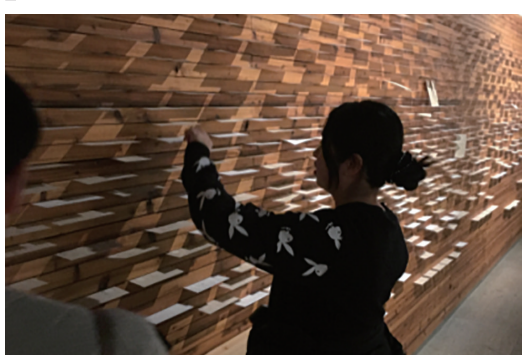
"오늘 내 기억 속 천리포수목원은?"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에서
정수연 선생님과 함께한 예술프로그램

여름 숲에 가면(8월 10~11일)



"숲의 아침"
광릉세미나하우스

겨울 숲에 가면(12월 23일)



"소원 빌어야지"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8 2018-02-14 오전 8:58:22

2017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 그룹 회장

부원장		
	서영수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회장

이사		
	정상옥	前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영일	㈜태명실업 회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김재천	성북구선거관리위원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부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
	김신한	대성 사장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천미전	세중문화재단 이사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회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39 2018-02-14 오전 8:58:22

감사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호섭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운영위원

강석원	대한건축가협회장
서세옥	前 서울대학교 미대학장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
최만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문

김영준	성신웹진 회장
마상곤	협운해운㈜ 회장
박창호	템피스투자자문㈜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이병무	㈜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피죤 회장
이의순	㈜세방그룹 명예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승소	㈜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김해용	삼미산업(주) 회장

명예고문

김성배	한진관광 부회장
양대길	영우통상(주) 회장
윤덕병	(주)한국야쿠르트 회장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40 2018-02-14 오전 8:58:22

2017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계영선, 권아름, 김경서, 김금숙, 김성미, 김연화, 김용준, 김용진, 김유영, 김육영, 김은화, 김장현, 김주미, 김준용, 김지은,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병호, 박영순,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배재현, 변성진, 서준석, 송수자,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강한, 이건자, 이동규, 이상림, 이상훈, 이석권, 이영애, 이은옥,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준성, 이중민, 임석규, 임정훈, 전원호, 정병기, 정종원, 정지연, 주연경, 최성규,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한동현, 홍선희, 황재호

기관·단체

(주)더비즈링크, 사군자반, 선학원, 희희낙락, 학연문화사, (주)아이디시에스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고기 굽는 마을(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6)



참나무이야기(서울 성북구 성북로12)



탭하우스F64(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41 2018-02-14 오전 8:58:27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42 2018-02-14 오전 8:58:27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18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2017 성북문화 제5호 .indb 143 2018-02-14 오전 8:58:27

www.isbcc.or.kr

성북문화원
깊은멋·나눔·즐김







80기 봄 / 81기 여름

성북문화원

수강생 모집

깊은 멋·나눔·즐김이 있는 열린 문화공간



강좌일정	80기 봄학기 3~5월(12주)	81기 여름학기 6~8월(12주)
강좌기간	**2018.03.02**(금) ~ **2018.05.24**(목)	**2018.06.01**(금) ~ **2018.08.23**(목)
접수기간	**2018.02.01**(목) ~ **2018.02.28**(수)	**2018.05.01**(화) ~ **2018.05.31**(목)
수업무료참관기간	**2018.01.22**(월) ~ **2018.01.26**(금)	**2018.04.23**(월) ~ **2018.04.27**(금)

※수업무료참관 관심있는 강좌의 참관을 통하여 강좌내용과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알아보고, 담당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보다 나은 맞춤형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필수)

※시범수업기간 2018.02.19(월) ~ 2018.02.23(금)
시범수업은 신규강좌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전화접수 필수)

접수 방법

인터넷 및 방문접수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문의전화 02-765-1611
홈페이지 www.isbcc.or.kr
결제방법 방문접수-현금 및 카드결제 / 인터넷접수-계좌이체 (인터넷 접수 첫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함)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201-270900 (예금주 : 성북문화원)

강좌별 개강·종강 일정

80기 봄학기 3월 ~ 5월

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3.05	03.06	03.07	03.08	03.02
종강일	05.21	05.15	05.23	05.24	05.18

80기 휴관일 5/7(월) 대체공휴일, 5/22(화) 석가탄신일

81기 여름학기 6월 ~ 8월

여름	월	화	수	목	금
개강일	06.04	06.05	06.20	06.07	06.01
종강일	08.20	08.21	08.22	08.23	08.17

81기 휴관일 6/6(수) 현충일, 6/13(수) 지방선거